

2003 연구보고서 250-6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 연구

2003 연구보고서 250-6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양애경(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춘아(위촉연구원)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 5일 근무시대 및 호주제 철폐의 가시화 등 이른바 문화변동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사회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계 일각의 우려처럼 주5일 근무제 사회는 늘어날 여가시간이 여성에게 명암을 함께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 및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 등 전근대적 문화현상에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호주제 철폐는 아직 국회통과의 난관을 남겨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보아 예의 변화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 획기적인 문화적 전환의 계기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는 흔히 정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요건의 하나로 일컬어 집니다. 사회가 온전하고 균형잡힌 형태로 발전하려면 문화, 경제, 정치가 각기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부산물로 간주되었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야말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여’와 ‘자율’ 그리고 ‘분권’을 3대 국정가치로 하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발전정책으로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상 재정립에 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은, 여성정책과 문화정책이 조우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적 함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일찍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에 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이 각국에 권장되는 가운데, 예술과 대중매체 그리고 문화보급 등에 있어 젠더의 관련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젠더관점에서의 문화정책 및 여성문화정책이 주목되어온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분야 여성정책으로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과제는 이른바 여성문화정책의 타당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가

시적 성과를 특정하기도 또 성과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려워, 그동안 여성정책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책개발이 미진하였던 문화분야에 보다 많은 주문과 요구가 이어지고 나아가 문화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현아, 박현경, 손경년, 양현미, 차옥덕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 성심껏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치하를 보냅니다.

2003. 12.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세월동안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각종의 법·제도적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보다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 이 평등한 사회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여전히 ‘의식’의 문제이다. 분야를 막론하여 거의 모든 여성정책 제안에서 남녀평등의식의 진전은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처방들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의식이란 게 본디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임에야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아직도 남녀평등의식을 논해야 할만큼 남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틀이 그만큼 완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식의 지체는 기실 문화지체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양성평등의 문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회에서의 여성발전은 고작 걸 치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제2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이 ‘실질적 남녀평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이 형식적인 남녀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여성정책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정책방안의 수립이 절실한 과제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화분야 여성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의 타당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도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특정하기도 또 성과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지만, 여성정책에 있어 문화부문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심이 지난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성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상황에서는 호주제폐지를 통해 남아 선호사상 및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 등 전근대적 문화현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이같은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배경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된 우리나라의 여성발전계획의 변천과정을 통해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동안의 여성문화정책이 위치한 지점을 파악해본다.

둘째,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문화정책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 및 실질적인 추진사업들을 모색함으로써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를 설정해본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1)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
- 2)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 3)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문화활동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안
- 4)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로서, 정책목표 및 방향, 추진사업

나.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2) 사례조사 :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함(26개 기관)
- 3) 전문가회의

3. 연구결과

가.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여성정책 흐름 및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통해서 본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

1) 여성문화정책 범주 또는 영역의 확장 필요

그동안 여성문화정책은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성평등한 미디어활동,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등의 범주를 기본틀로 하여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이는 곧 여성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화적 관심사가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시급성과 여성들의 다양한 자기표현활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두어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같은 인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여성문화정책의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과제설정의 단계에 있어서 지난 수년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된 과제와 사업의 면면에 관한 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근들어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유산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채택되고 있음은 이같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되, 문제는 정책영역으로서 보다 분명한 자리매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제 및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성의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이며, 여기에는 ‘권리’와 ‘복지’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향유 시설 확대와 같이 이제까지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은 주로 복지적 측면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소외계층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든가 문화교육 등 기본적 권리로써 문화권 확대를 위한 과제가 여성문화정책으로서 적극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조정 필요

이는 여성문화정책의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 앞의 지적사항과도 결국에는 연결되겠지만, 그러나 여성과 문화에 관한 시각조정 필요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

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정책에 있어 문화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여성정책의 출발과 궁극적 도달점은 모두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리매김되지 못한 문화환경으로부터 여성문제가 배태되었듯,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실현이야말로 여성발전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대안문화활동으로서 이른바 ‘여성문화’운동이다. 현상적으로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활동 중 하나이지만, 남녀가 평등한 새로운 문화창출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문화활동에 강력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여성문화’운동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문화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화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진출을 확대하는 일이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비단 문화분야 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친화적이지 않던 분야에서의 성인지 정책이 적극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 등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정확한 목표와 추진사업 등 정책과제의 명료화 필요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다. 문화가 갖는 불가시적 특성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의 일부 문화분야 과제에 대해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마저 과제의 추상성을 이유로 실행불가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던 경험은 좋은 예다. 정책이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것인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개발하는 일의 시급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 지역의 여성 문화활동 사례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

1) 여성 문화활동 현황조사 및 문화욕구조사 필요

조사대상 기관에서 많은 여성들(특히 전업주부)이 단순한 문화수용자 또는 문화교육수강자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봉사자로 또는 문화예술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또는 교육수강자에서 교육강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10년 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을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그 사이에 문화관련 기관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문화교육수강자들도 일부 중산층 전업주부에서 확대되었으며 연령층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문화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와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성인지적 관점을 문화기관 운영에 도입할 필요

여성회관류(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는 여성들의 문화공간임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반면 다른 기관은 교육수강자들이 여성 대다수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딱히 여성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요망되는 사안이다.

3) 여성문화공간에 대한 비전 설정 필요

여성회관류 역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여성들의 문화전문인력으로 방향설정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문화+공간의 활성화에 제각각의 목표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명한 비전설정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문화의 시대에 대한 막연한 설정만으로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들로 젊은 여성들을 흡인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 곳곳에 문화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자적인 여성문화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면 일정한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을 빼앗기게 된다. ‘여성을 위한’ + ‘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 + ‘공간과 시설의 다양한 활용’으로 기관운영을 해야한다. 따라서 지역내 연계프로그램 및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요망된다.

4) 시설보완 필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부산여성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인천, 대구, 성남여성문화회관은 모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강좌도 듣고 수영도 하는 등 여성들을 이들 공간에서 좀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5) 여성문화관련 운영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들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없다. 몇년 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전국의 여성회관장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뿐이라고 한다. 문화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여성수강자들에게 순발력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문화관련 운영자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6) 여성문화인력 확보 필요

문화교실- 숙련반 및 예술단 - 문화자원봉사의 연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의 경우 10년간의 노하우로 35개 팀 41분야로 39개의 활용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량과 전문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부분에 있어서 문화자원봉사 영역을 넘어선 문화예술전문가와 문화기획자 양성으로 한 단계 높게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문화의 명칭을 갖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여성문화인력을 자원화할 수 있는 단계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자생적 여성문화소모임과 여성문화예술전문가 집단 등을 기관내 유치하여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여성문화인력의 산실로 커나갈 수 있어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문화생산자로서 여성 인식 필요

방문기관에서 만났던 기관장과 담당자들 가운데 영남대박물관, 광주북구문화의집, 송파구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다. 남성 면담자들은 자

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이 대다수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여성을 고려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토지박물관의 경우는 박물관대학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으로 고학력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 이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활동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송파 품앗이’ 제도를 두어 지역주민 상호신뢰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생활문화형성에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8) 전문문화교육담당자 배치 필요

삼성미술관이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자원봉사(전시해설봉사 및 자료 정리봉사) 영역은 큐레이터가 담당하지 않고 에듀케이터(educator)라는 전문 인력을 둬으로써 기관운영과 홍보,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확보에 의한 운영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마케팅 차원의 이용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 여성문화정책의 체계

1) 여성문화정책의 목표

양성평등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권리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2)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추진사업

①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 조성

①-1. 제반 사회활동 조직 내 여성친화적 문화 형성

- 양성평등지수 개발
- 양성평등도시만들기 사업 도입
- 중앙 및 지자체 내 공공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도 조사
-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효율화
- 시민활동조직, 사기업 등 민간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성 조사

- ‘여성주간’ 사업관계자 워크숍

①-2. 양성평등한 대중문화환경 조성

-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 방송·언론사의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 뉴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성차별적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공감 확산 사업

② 여성문화인적자원 개발·양성

②-1. 여성문화인력의 저변 확대

-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실무자 교육
-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강화
- 여성문화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 기금 지원
- 전국의 여성문화활동 현황파악과 활성화 지원방안 조사연구
-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내 문화프로그램 확대
-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수 지원

②-2. 여성문화자원봉사자제도의 활성화

- 각종 문화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40-50대 주부 중심의 문화 봉사자 지원
- 고학력 취업여성들의 조기 은퇴에 따른 자기계발 및 문화봉사 적극 권장
- 여성문화봉사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 여성문화예술활동 동아리의 지역사회 문화봉사 활동 권장

②-3. 문화예술계 전문여성인력의 실태 파악

- 문화예술영역의 성별 통계작업 실시
- 전통여성문화 종사자에 대한 재조명과 지원

②-4. 문화공간종사자 및 공연기획자, 문화예술 경영직, 문화행정직의 여성인력 양성 및 지원

-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경영직의 여성참여 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사회복지기관의 여성사회복지실무자에 대한 문화기획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 ②-5. 새로운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영역의 여성전문인력 양성
-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을 위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산업 관련 직종 개발 확대 실시
- ③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수용활동 지원
- ③-1. 여성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 할당제 도입
 - 국공립 공연장에서 여성 예술가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국공립 미술관에서 여성 미술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기회 확대
 - 국공립 도서관에서 여성 문인의 도서 구입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예술가의 발굴·지원을 위한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
 - 여성 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및 여성예술에 대한 연구, 평론 활동 지원
 - 각종 여성예술제 지원
 -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 ③-2.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대
-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여성문화공간 조성
 - 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 문화시설 내 여성편의시설(화장실, 탁아소 등) 확충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말 가족 프로그램 확충

- ③-3.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실시
 - 여성문화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여성 동호회 활동 지원
- ④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협력 지원
 - ④-1. 지역여성 소그룹활동의 종류 및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및 시설 조사
 - 지역여성 소그룹 활동의 종류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여성 문화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및 시설조사
 - ④-2. 지역사회에서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방안 모색
 - 지자체의 조례,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 제도적측면에서의 불평등조항 개선
 - 여성학적 인식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제공과 여성문화예술동아리 육성
 - 여성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존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 ④-3. 지역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방안 모색
 - 여성문화 활동단체 및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센터 확보
 -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 ‘대안문화공간’을 통해 아방가르드,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문화시장에서 취약한 여성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을 유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및 통합의 장 마련
 - 인접지역간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의 공동 기획
 - 지역여성 문화활동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및 정기적인 여성문화 포럼 운영
 - 지역여성단체간 네트워크를 위한 가칭 ‘여성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 ⑤ 여성의 문화활동 자원화 및 생산적 활용 지원

- ⑤-1. 각종 여성문화활동의 자료화 및 체계적 관리
 - 장르별 여성문화예술활동의 기록 작업팀 운영
 - 여성 문화활동 자료실 설치(일반 자료실 및 영상문화자료실: 영상아카이브 설치)
- ⑤-2. 여성문화생산물의 유통 지원
 - 여성문화생산물 자원은행(Resource-Bank) 설치 및 활성화 작업
 - 여성문화활동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 주선사업 실시
- ⑤-3. 여성문화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여성 창업 지원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여성기업인에 대한 융자 지원
- ⑤-4. 여성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사업의 집중 육성
 - 아시아 및 국내의 여성문화를 리드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 운영
- ⑥ 여성문화자산 발굴 및 발전적 계승 장려
 - ⑥-1.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활용 증진 지원
 - 지역 단위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사업 지원
 - 전통 여성공예산업 클러스터(Cluster) 형성 지원으로 계승발전 및 관광 자원화
 - 각 박물관의 여성사부문 전문가 배치
 - 여성사 전시관 사업내용 보완
 - 여성역사(문화)박물관 설립지원
 - ⑥-2. 역사 속의 한국여성인물 제대로 알기
 - 역사 속의 다양한 여성인물 모델 발굴 연구를 위한 단체 및 연구자 지원
 - 지역 단위 여성인물상 발굴 및 조형 지원
 - 다양한 여성상 개발 공모시상

- 교과서, 매스컴 모니터 및 새로운 교과서 영상물 제작 등 지원
- 국사 새롭게 쓰기
-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주체가 된 역사사업 지원
- 여성인물 애니메이션사업 지원
-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에 여성 선정 확대

⑥-3. 여성역사문화의 재정립

- 문화관광부, 교육부 내 여성역사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 여성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양성평등한 역사관광문화 정립

⑦ 문화분야 여성정책 전담 정책전달체계 정비

⑦-1. 여성부내 문화담당부서 설치

- 기존의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하여 구체적이고 통일된 여성문화 정책 기본계획안을 구성
- 새로운 여성문화를 기획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안 기획
- 여성문화 부분에서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고려
- 양성평등문화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적인 할당제, 혹은 여성관련 우선지원정책 고려

⑦-2. 문화부내 여성담당부서 설치

- 문화관광부 내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 문화생산, 문화활동가로서 여성활동을 고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활동가 중 여성중점지원사업 기획
- 양성평등한 관광문화정책 수립
- 제한된 범위의 문화의 개념을 넘어서서, 양성평등문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사업추진

⑦-3.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내 여성참여 제고

- 문화예술영역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확대
- 다양한 역사문화위원회 내 여성 참여 증진
- 기타 각종 문화관련위원회에 여성할당제 채택
- 각 위원회별 소속 여성들 간의 전체 네트워크 형성 지원

차 례

제 I 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10
3절 연구의 제한점	11
 제 II 장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13
1절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	17
2절 국제적 동향	28
3절 소결: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1)	38
 제 III 장 지역의 여성 문화활동 사례조사	41
1절 조사개요	44
2절 조사결과	46
3절 소결: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2)	66
 제 IV 장 여성문화정책의 체계	69
1절 여성문화정책의 목표	71
2절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73
 제 V 장 결론 및 제언	107
1절 결론	109
2절 제언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5

표 차례

<표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여성부문(1992-1996)에서의 문화분야 계획	23
<표 2>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에서의 문화분야 정책과제	24
<표 3>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서의 문화분야 정책과제	27
<표 4>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틀	74
<표 5> 여성문화정책방향의 관련성	76

그림 차례

[그림 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개발부문'의 개념도	22
--	----

부표 차례

<부표 1> 『여성백서』(1985, 1991)상의 문화활동 관련내용	127
<부표 2> 여성문화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영역들의 비교	129

I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2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10
3절 연구의 제한점	11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가발전계획에 여성부문이 독자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래,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발전전략으로서 여성정책은 그동안 괄목할 정도의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최초의 종합적 여성발전계획으로 채택된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1998-2002)에 이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성주류화를 주요한 정책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3-2007)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여성정책은 보다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과 기대 못지 않게 여성정책 영역간 균형발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른바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정책수행의 본래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이겠으며, 정책의 발전정도나 그 성과에 있어 상대적 후진성을 보이는 정책영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때로 여성정책의 실효성이나 전반적인 정책성과에 회의를 안겨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 하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정책이란 여성을 둘러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영역에서의 문제해결만으로는 정책의 자기완결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각 영역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및 상보성이 담보되는 가운데서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여성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여성인적자원’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는 비단 여성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한 여성교육이나 고용 등 정책영역에서의 과제추진만으로 풀리지 않을 일이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교정한다든가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재조명의 노력 등이 함께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인적자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동안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각종의 법·제도적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보다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 이 평등한 사회실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여전히 ‘의식’의 문제이다. 분야를 막론하여 거의 모든 여성정책 제안에서 남녀평등의식의 진전은 결코 빠

놓을 수 없는 처방들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의식이란 게 본디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임에야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아직도 남녀평등의식을 논해야 할만큼 남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틀이 그만큼 완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식의 지체는 기실 문화지체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양성평등의 문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회에서의 여성발전은 고작 겉치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제2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이 '실질적 남녀평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이 형식적인 남녀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여성정책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정책방안의 수립이 절실한 과제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화분야 여성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의 타당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도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특정하기도 또 성과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지만, 여성정책에 있어 문화부문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심이 지난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성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상황에서는 호주제폐지를 통해 남아선호사상 및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 등 전근대적 문화현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이같은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관심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로, 특히 그동안의 여성발전계획에서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과 문화라는 정책영역에 대한 그간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추진과제 및 사업의 면면으로써 주로 다루어온 정책범주는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제 여성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정

책적 현안을 살피는 것이다. 국가적차원의 여성발전계획으로서 추진되었던 앞서의 여성문화정책의 면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지역여성의 문화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안사항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 여성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의 시설 또는 단체를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여성문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도움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이상과 같은 시사점들 및 여성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안팎의 논의들에 기반하여 향후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로서, 즉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 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본론에 앞서 우선 여성문화 및 여성문화정책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부터 짚어져야 할 것 같다. ‘여성문화’에 대한 기왕의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여성과 문화’와는 통상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설명 없이 사용하는 ‘여성문화정책’은 정책범위상의 애매모호함을 불러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 여성문화, 여성과 문화

일반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다양함과 깊이 만큼이나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또한 넓고도 깊다. 이에 대한 선행의 연구결과¹⁾에 기초해보자면, 여성문화란 다음처럼 두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겠다.

하나는 특정의 시기 및 사회에서 여성에게 특정되는 사고유형, 행동양식, 지

1) 여성문화’의 개념을 둘러싼 제 논의들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화관련 전문가들을 대역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여성문화의 개념을 정립코자 한 본원의 선행연구결과(김양희 외,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는, 상이한 두가지 접근틀로써 여성문화의 개념이 차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즉, 현상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 여성문화를 기존문화 안에서의 하위문화개념으로서 이해하게 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기대에 의한 접근에 있어 여성문화는 기존문화와는 대비되는 독자적이고 대안적인 문화로서 이해되고 있음

식체계, 생활관습 등의 총칭으로서, 이를테면 기존문화의 하위 또는 부분문화적 속성으로서의 여성문화다. 이는 여성이 소비자가 되는 문화적 산물 또는 상품으로 여성의 자아인식과 인간관계의 틀이 되는 사상, 관념,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하며,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문화·여가활동²⁾을 일컫는다.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여성특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보다 새로운 여성상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하는 지식 및 신념체계, 행위양식 등까지를 의미하는 여성문화다. 새로운 여성상이란 곧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모순이 투영되고 있는 기존문화에 대한 대안적 속성을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성문화란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부분문화와 발전지향점으로 기대되는 대안문화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성문화의 이같은 의미는 사실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현실분석으로부터 변화를 향한 정책적 대안의 의미까지를 포함한 함축적 표현으로도 생각된다. ‘여성과 문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문화현실은 주류집단인 남성의 생활과 표현방식에 압도될 수 밖에 없어,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을 부재케 하는 현상이다. 이로써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진정한 ‘문화’의 형태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주로 남성적 시각의 대상으로서 소재화되는 데 그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흔히 남성중심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의식하지 못한 채로 성이데올로기 재생산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³⁾ 따라서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의 자기인식과 구체적 활동은 남성의 시각에 독점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 형성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자, ‘여성과 문화’를 바라보는 궁극적 전망에 다를 아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전술한 ‘여성문화’의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즉, ‘여성과 문화’의 인식틀 안에서 ‘여성문화’의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자의 의미와 내용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2) 김양희 외, 앞의 책, p. 42.

3) 김양희 외, 앞의 책, pp.23-29 참조.

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양자가 지닌 개념상의 불분명함을 가리는 것 보다는 양자가 담고 있는 문제인식에 근거한 정책적 타당성의 내용에 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 점에서 ‘여성문화’든 ‘여성과 문화’든 문제인식은 동일한 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여성문화는 곧 여성과 문화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보아 무방할 것이다.⁴⁾

2. 여성문화정책

여성문화정책은 아마도 가장 단순하게는 여성문화에 대한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여성문화가 지닌 개념상의 두 측면을 고려하고 보면, 여성문화정책을 그리 간단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공공문제(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지침이 다름아닌 정책⁵⁾인 이상, 여성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여성문화정책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우선 기존문화 가운데 하나의 부분문화이자 일반적으로 여성문화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이같은 측면에서의 정책개입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상황부터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의 문화경험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그로 인한 문화발전 지체로 요약될 수 있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문화적 경험은 주변적이어서 구조적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대상화되거나 상품화되는 문화를 이름으로써 문화창조자로서의 여성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⁶⁾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첫단계는, 제한적 문화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 뿐 아니라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4) 말하자면 여성과 교육을 ‘여성교육’으로, 여성과 고용을 ‘여성고용’으로 통상 약칭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

5)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미래예측과 정책형성』, 2003, p.3.

6) 김양희 외, 앞의 책, pp. 43-44.

부터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여성문화정책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여성의 정서적 수요와 관련된 전문적·비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문화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정책⁷⁾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견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로서의 문화권 확대라든가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복지 증진 등 통상적인 문화정책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근원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결국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여성의 문화적 참여가 아무리 크게 늘어나더라도 가부장제 하에서의 제한적인 문화발전인 이상, 여성의 문화적 지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성차별적인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적 대안이 필요하며, 여성문화정책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문화정책이란 문화적 가치의 생산과 수용으로부터 여성을 배제시켜온 관행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가치생산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이를테면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감에 있어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상으로서의 ‘여성문화’와 기대치로서의 ‘여성문화’라는 여성문화를 개념짓는 두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정책으로서는 종국적으로 하나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같은 과정은 어쩌면 정책의 본래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정책이란 현안으로서의 공공문제 또는 사회문제 해결 뿐 아니라, 앞으로 취할 정부의 행동방침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성’⁸⁾을 띠기 때문이다.

여성문화의 대안문화적 지향을 향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는, 일찍부터 예술과 대중매체 그리고 문화보급 등에 있어 젠더의 관련성과 평등성을 지적해온 UNESCO의 노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와 발전(Culture And

7) “문화정책은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수요와 관련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홍익, “문화정책연구의 영역과 접근방법”,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전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p. 126).

8)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앞의 책, p. 4.

Development)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경으로 전세계적으로 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젠더관점에서의 문화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 온 터다.

젠더관점에서의 문화정책, 또는 문화정책에서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노력은 한편으로 이른바 WID(Women In Development) 관점의 여성정책으로부터 GAD(Gender and Development) 관점에 의한 여성정책으로의 여성정책 발전단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문화적 개입의 폭을 넓히는 노력, 예컨대 여성의 문화적 수요와 관련된 전문적·비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문화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여성문화정책이 WID적 여성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데 비해,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해가기 위한 문화의 여성적 개입, 즉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역할을 뒷받침하는 여성문화정책은 GAD적 여성정책의 한 전형으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에 따라 여성문화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분명 보다 전향적임에 틀림없는 GAD관점의 여성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WID관점의 여성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지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여성문화정책이란 여성의 문화적 개입과 문화의 여성적 개입을 통해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을 자리매김하고 양성평등의 문화적 조건을 갖추어 나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⁹⁾

9) 이 지점에서 여성문화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관계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임. 양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 내용 또는 추진체계 등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여성문화정책이 문화분야에 관련된 여성정책임을 의도한다고 밝힌 이상, 예의 추가적 논의를 굳이 전개하지는 않고자 함.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여성문화정책을 양성평등문화정책의 주요 하위 범주로 설정한 김현숙의 의견(양현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19차 여성학회 발표문에 대한 김현숙의 토론내용)에 동감하는 것으로, 양자의 의미규정에 대한 본 연구자의 시각을 대신하려고 함. 아울러 본 보고서 본문 72쪽에 나와 있는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참고하기 바람.

2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1. 목적

이상의 배경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된 우리나라의 여성발전계획의 변천과정을 통해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동안의 여성문화정책이 위치한 지점을 파악해본다.

둘째,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문화정책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 및 실질적인 추진사업들을 모색함으로써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를 설정해본다.

2. 내용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

둘째,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셋째,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문화활동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제언

넷째,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로서, 정책목표 및 방향, 추진사업

3. 방법

본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 여성문화 및 여성의 문화활동에 관한 선행의 연구결과, 문화정책론, 여성발전계획상의 문화분야 정책과제,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관련.

둘째, 사례조사 :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여성문화활동시설 및 단체(26개 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함.

셋째, 전문가회의 : 여성문화활동 시설 및 단체 운영자, 기획자, 여성문화이론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여성문화정책의 범위, 방향, 과제 등의 설정과 관련한 논의를 거침(총 5인, 3회 운영).

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여성의 문화활동 사례조사에서 초래될 수 있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시설 및 단체에서 여성의 문화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활동현황 및 기관운영 등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문화활동이 취약한 사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례조사를 위한 대상 기관도 소수이고, 소모임활동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동 조사에 의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한계이다. 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이 문화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선상에서 검토될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여성의 접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을 다룬 것으로, 성관점에 의한 문화정책 분석까지 본 연구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분석과 같은 별도의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Ⅱ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1절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	17
2절 국제적 동향	28
3절 소결 : 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1)	38

Two decorative horizontal band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nd is thin with a light cross-hatch pattern. The bottom band is thicker with a denser cross-hatch pattern.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국가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문화개념과 문화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부는 예술정책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던 ‘문화’의 개념을 광의의 문화개념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른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풍미한 ‘세계화’ 모토는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의 개념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문화정책은 단지 추상적인 차원에서 명분상의 변화만을 추구했거나 문화정책의 대상영역을 확장하는 정도의 부차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뿐,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관주도적 문화정책의 한계를 답습해왔다.¹⁰⁾ 여성문화정책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적 여성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문화정책이 노태우대통령 시절 모습을 드러내고 문민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정책범주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다분히 복지적 측면에서의 문화활동 증진의 일환일 뿐이었다.

임기 중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문화의 세기’, ‘문화대통령’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정부를 등장시킨 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 원칙적으로 과거의 낡은 정책 및 관행과의 차별성을 선언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특히 과거와는 달리 ‘문화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부각시켰다. 그렇지만 이때 문화발전의 의미는 실제적으로는 문화산업발전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의 권위주의적 문화정책의 병폐가 경제주의적 문화정책의 새로운 병폐로 대체¹¹⁾된 셈이었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시기와 일치하는 이 무렵 여성문화정책도 의견상 정책과제로서 틀을 갖추고 지정된 정책추진체계 하에 실질적인 시행의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요 추진부서인 문화관광부조차 과제의 추상성을 들어 시책추진상의 어려움을 토로할 만큼,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로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정부 내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해당분야 여성정책

10)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국민의 정부’ 문화적 평가와 정책대안」, 2002, p. 24.

1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앞의 글, p. 27.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데 비추어, 문화관광부내에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지 못했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2001년 출범한 여성부조차도 문화분야를 주관하는 부서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정책의 우선순위 상으로는 상당히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와 ‘자율’ 그리고 ‘분권’을 3대 국정가치로 하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발전정책으로서 문화정책에 대한 위상 재정립에 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고부가가치 물량위주의 공업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지식문화서비스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문화활동이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되기 시작하고, 경제발전의 메커니즘이 변화함에 따라 공교육에서의 교육과정과 체제의 변화는 물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요가 증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복지와 여가체계의 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면서 경제-교육-복지정책이 문화정책을 매개로 입체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정책 전반의 문화적 리모델링이 요구되기 시작¹²⁾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가치를 문화예술 현장에 정착시키고, 문화적 가치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국정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여지고 있다.

이로부터 여성정책이 문화정책과 조우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정책에의 성주류화는 이미 여성정책의 오랜 여망이던 참으로, 양성평등한 문화정책을 바라는 여성계의 기대도 높을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추세에 빚대어 여성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 또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필요로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계 일각의 우려처럼 늘어날 여가시간이 여성에게 명암을 함께 드리울 수도 있는 주 5일 근무제 사회가 가시화되고, 무엇보다 가히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라 할만한 호주제 철폐 또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여성문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가·취미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

12) 강내희, “경제적 이성비판과 사회발전”,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p. 15.

적인 문화주체 형성의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은 국가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점으로부터 여성문화 정책과의 관련성을 개략적으로 언급한 것이거니와, 이하에서는 우선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화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그동안 여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이 위치한 지점이 어디쯤이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의 정책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젠더관점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여성과 문화에 대한 몇몇 선진국가의 정책동향이라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절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과 성과

1. 문화관련 여성정책의 주요 범주

여성정책으로서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여성부문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주로 채택한 문화관련의 여성정책 범주 양상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의 『여성백서』는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해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여성관련 정책 및 향후계획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정부의 여성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 바로 여성백서이다. 따라서 여성백서에 수록된 문화분야 기술내용을 보면 문화관련의 여성정책 사업들을 개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서발간은 정부조직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주관하는 것으로, 최초로 여성업무를 전담하게 된 정무장관(제2)실에서 백서를 주관한 1995년 이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다.¹³⁾ 이에 따

13) 여성백서는 1985년에 처음 발간된 데 이어 1991년에도 발간된 바 있음. 이때는 모

라 아래의 표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백서의 발간 주관처별로 문화분야의 주요한 기술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매년 발간되는 백서의 기술내용은 때로 동일한 주관처 하에서도 달라지기도 하나, 주요한 구성항목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된 틀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표는 역대의 여성정책 관련 정부조직에서 문화와 관련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어떻게 보아 왔는지를 가늠케 해주기도 한다.

정무장관(제2)실이 발간 주관한 1995-1997년도 여성백서의 문화관련 항목

- 남녀평등기반의 구축/남녀평등의식의 제고
 - 사회교육을 통한 평등의식 확산(국·공립연수기관 평등의식 교육강화)
 - 여성의 복지증진
 -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일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 농촌여성의 복지증진(농촌 생활문화의 향상)
 - 건강한 가정과 문화활동 지원*
 -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여성문화활성화)
 - 여성공동의 장 운영
- * 1996년과 1997년에는 기술되지 않은 항목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발간 주관한1998-2000년도 여성백서의 문화관련 항목

<1998년>

-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
 - 공직사회에서의 남녀평등문화 확산(평등사랑방 개설 운영/국공립연수기관의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 전문창작예술분야의 여성활동
 - 대중매체부문의 여성 활동
 -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두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아닌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간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는 정부조직에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없이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관련정책을 담당하였던 사정에 기인하는 것임. 따라서 당시의 문화관련 여성활동 상황에 대한 여성백서 기록사항은 <부표 1>에 정리해두었음.

<1999-2000년>

-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
 - 남녀평등의식 개선(여성주간 행사/각종 평등상 시상)
 -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
 -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 여성참여율이 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 여성체육·청소년 활동 지원*
- * 1999년에는 기술되지 않은 항목임

여성부가 발간 주관한 2001-2002년도 여성백서의 문화관련 항목

-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
 - 남녀평등의식 개선(여성주간 행사/남녀평등상 운영/5대생활문화개선운동/공무원대상 남녀평등의식교육/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여성복지기반 확충
 - 취약계층 여성복지대책(일본군 위안부 복지사업)
-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
 -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 여성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 지원
 - 여성체육·청소년 활동 지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여성발전의 영역으로서 문화분야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심의 기본틀은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거의 대동소이한 채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최초로 여성업무를 전담하게 된 정무장관(제2)실 시절에,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부의 관심은 다분히 복지증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 듯 하다. 예컨대 우리의 여성역사에서 바르게 규명되지 않으면 안될 종군위안부 문제는 그저 요보호여성의 복지대책 정도로 간주되고, 농촌여성의 문화활동도 생활문화 향상을 표방하며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문화활동은 건강한 가정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1996년과 1997년에는 아예 다루어지지조차 않을 정도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게 된 이후, 여성문화활동

활성화가 고정적인 기술항목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면 일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문화활동’과 관련한 집필이 문화관광부의 전통지역문화과에 의뢰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는 문화관광부의 자체적인 사업 속에서 여성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천되는 문화관련 과제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집행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부처로 여성부가 설치된 뒤에도 문화관련 여성정책 사업들의 내용은 그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의 법·제도적 개선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성 사업들이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문화활동은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 여성백서를 통해 본대로 역대의 여성업무 주관 정부부처가 다루어온 문화분야 여성정책 사업의 틀은 비교적 일정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평등의식의 정착과 확산 사업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등의식 및 공직사회의 평등문화 확산 등을 위한 의식교육과 각종 홍보행사 등이 주 내용이다. 둘째,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이다. 사람들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대중매체는 특히 주목되어온 영역으로, 전통적 성역할의식을 극복하고 성균형적 이미지 생산과 남녀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미디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 제작·심의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셋째,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및 교류협력 지원이다. 여성을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의 주된 대상으로 파악하여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 및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외에도 문화교류협력활동 지원,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여성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농촌여성의 생활문화 조성이다. 물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농촌여성의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여성과의 문화생활 수준의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2. 여성정책으로서 문화분야 수용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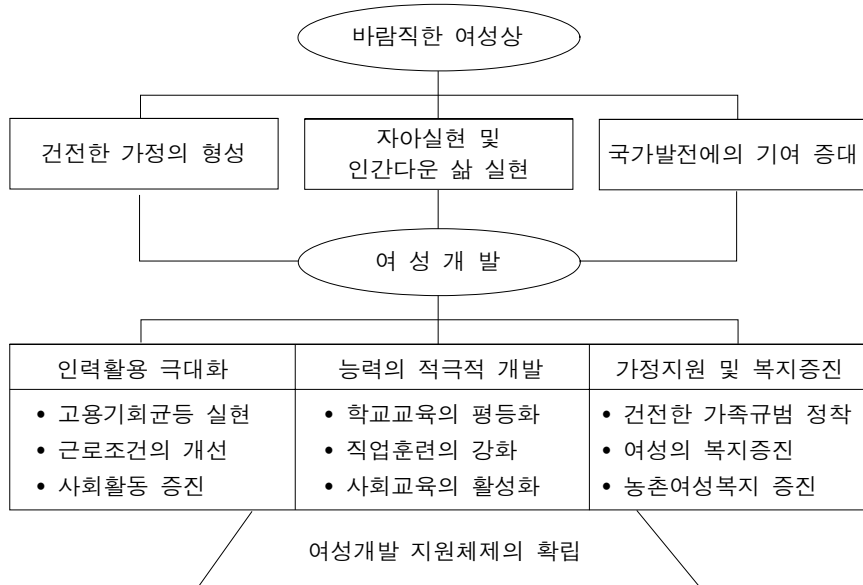
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여성개발부문

여성정책의 국가계획 통합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보건사회부문에 ‘여성개발부문’으로 포함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여성개발의 기본목표는 여성자신과 가정,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첫째 여성의 자아가 실현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며, 둘째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전하게 형성·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셋째 국가 및 사회발전에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증대¹⁴⁾할 수 있게 하는 방향 하에서 주요 시책과제들이 설정되었다. 말하자면 아래의 개념도로써 설명될 수 있듯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의한 여성정책의 목표는 인력활용,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통한 여성개발에 의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여성상을 창출하는 데 두어지고 있었다.

바람직한 여성상의 핵심이 자아를 갖춘 주체적 인간이자 국가 및 사회발전에 동참하는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통적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해 정형화된 여성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성중심의 사회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형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당시의 여성정책에서 문화분야가 지니는 의미는 일견 매우 각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과제로서 구체화하였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¹⁵⁾ 결국 여성정책의 궁극적 지향을 새로운 문화형성에 두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대신, 여성의 인력활용과 능력개발 그리고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개발로써 이를 달성한다는 또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시사하고 있을 뿐이다.

14) 보건사회부, 『제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보건사회부문계획 1987-1991』, 1987, p.333.

15) 다만 사회교육분야 추진과제로서 ‘사회교육내용의 평등화’를 위해, 국공립연수원 및 문화시설 등의 교육내용에 남녀차별의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외에 사회활동 증진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임.



[그림 1]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개발부문’¹⁶⁾의 개념도

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의 여성개발부문

국가계획에 포함된 여성정책으로 문화분야가 수용된 것은 사실상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여성부문’(1992-1996)부터다. 보건사회부문의 하나로 포함되었던 이전과 달리 별도로 독립되어 제시된 제7차 5개년계획 중 여성개발부문 계획은 21세기를 조망하면서 전반적이며 실질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1990년대를 설계하려는 계획이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발전 속에서 새로운 가족문화, 자녀교육문화, 시민문화의 창출이 요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주류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이 그들의 경험세계를 토대로 문화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문화토양 개선과 사회문제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로써 문화분야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참여 확대, 제반사회문제 특히 아동·청소년

16) 보건사회부, 앞의 책, 1987, p.333.

년·환경보존의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의 여건전망에 기초하여 사회활동분야와 함께 묶이어 문화·사회활동분야의 정책과제로서 비로소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는 동 계획에 포함된 문화분야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여성부문(1992-1996)에서의 문화분야 계획

시책방향	정책과제	주요내용
● 바람직한 가족문화 및 자녀교육 환경의 정착	1) 가족문화 정착	- 부모역할 및 부성개발 교육자료 발간 - 부모교육 실시 - 가족중심의 여가 및 놀이문화 시설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
	2) 자녀교육환경 정화	- 학교주변의 절대정화구역 확장 및 위반 업소 형벌규정 강화 - 여성단체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 올바른 성지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문화 운동 - 부모를 위한 자녀 성교육 교재 개발
●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개선	1) 심의기준 강화	- 신문, 잡지, 방송, 공연 관련 심의위원회의 성차별적 내용 및 성상품화 심의기준 강화 - 표준화된 심의기준 마련 - 심의위원회에 여성전문인 참여 확대
	2) 모니터링 연합기구 설립	- 모니터링 단체들간의 연합기구 설립 - 모니터링제도에 여성전문가 참여
	3) 모델 프로그램 개발	- 건전한 인간관계와 역할모델 제시하는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제작 및 홍보지원 - 포상제도 마련
● 여성의 창의력 개발과 창작예술 활동 지원	1)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여성들을 위한 문화발전 중장기계획수립
	2) 여성회관의 문화 기능 확충	- 여성문화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 문화전문요원 배치 지원
	3) 지역문화활동의 장 마련	- 지역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전수 및 발전에 여성참여 확대 - 새로운 성역할에 부응하는 전통문화의 재창출
	4) 창작활동 지원	- 창작예술분야 전문여성 활동 지원 - 여성전통예술인 발굴 - 주부들의 그룹문화활동 지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가족문화 및 자녀교육환경 정착,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의 창작예술활동 지원 등이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이나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작예술활동 지원과 같은 시책이야, 문화분야 여성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가족문화 및 자녀교육환경 정착과 같은 경우는 다소 의외다. 가정과 자녀교육 등은 역시 여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의식에 입각한 과제설정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교육 환경 정화 사업은 그 내용과 취지를 보건대,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문화 정립과 같은 식으로 바뀌 표현하는 편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

여성발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으로서 정책과제가 제시된 것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때의 일로서, 아래의 표는 이 가운데 문화분야에 관련된 과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에서의 문화분야 정책과제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1-2. 남녀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1-2-1. 남녀평등의식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1-2-2. 남녀평등의식제고 공익프로그램 제작 지원
	1-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3-1. 대중매체종사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1-3-2. 전문모니터양성 및 모니터활동 지원 1-3-3.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 심의기준 정비
12.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 신장	12-1.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 부담 완화	12-1-1. 고정화된 역할분담의식의 개선 12-1-3.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계속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16-1. 여성의 문화 활동 지원	16-1-1. 각종 문화수준 평가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16-1-2.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16-1-3.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16-2. 여성의 문화 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 여성예술단 창설 지원 • 여성문화예술인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 여성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동호인 활동 지원 • 각종 문화예술전문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 여성문화제 개최 지원 • 여성과 친숙한 문화관련 인간문화재 분야 발굴 및 지정

남녀평등 의식 제고,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거니와, 이는 앞서 여성백서를 통해 미리 살펴본 바 있는 문화관련 여성정책의 범주를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를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의 맥락에서 따로 떼어 다루고 있는 것도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여성의 문화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문화저변인구 확대를 통해 여성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목적 하에 2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설정한 데서, 성역할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한 전반적인 문화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문화분야 여성정책 과제의 수준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때로부터 크게 진전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보다 시책으로서의 명료함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조차 지나친 추상성 및 비실효성 등으로 인해 구

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던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와 같은 과제는 그 좋은 일례이다. 이같은 결과는 일면 타 시책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수준이 강한 탓이라든가, 혹은 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체계들의 이해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초 시책과제를 설정할 때, 과제마다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계획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한 시행계획 및 실적 등을 보면, 시책과제간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사업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시책에 대한 지자체간 이해양상에도 편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문화소비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여 사업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즉, 문화생산자로서의 여성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기왕의 문화활동에 여성참여정도를 확산·용이하게 하는 데에 역점이 두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¹⁷⁾

그렇지만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의 문화분야 과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상의 영역을 문화활동으로 넓히는 데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또 이로써 필연적으로 문화적 가치 전환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를 이끄는 인적·물적 자산이 구체적으로 결합하되, 이를 통해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도 역시 그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

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그리고 성주류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다.

17) 김재인·조연숙,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여성개발원, p.434-35.

<표 3>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서의 문화분야 정책과제

(관련) 해당영역	정 책 과 제	
5. 사회·문화분야 여성 참여 확대	5-3. 여성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확대	5-3-1. 각종 문화예술 실태 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5-3-3.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5-3-4.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10-1-2.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10-2.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10-2-1.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및 시정 강화 10-2-2. 미디어 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10-2-3. 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제시되어왔던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내용을 여성의 문화 예술활동과 평등문화 확산 등 크게 두 영역으로서 체계화하고 있다. 이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다. 즉, “여성이 문화예술활동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영역에서 여성인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성들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¹⁸⁾한다는 데서 ‘여성과 문화’에 관한 일견 진전된 형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진과제로 제시된 각종 문화예술 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은 제1차 계획에도 들어있었으나,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재조명 등 새로운 과제가 설정되는 등의 변화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평등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및

18) 여성부,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2, p.89.

시정 강화, 미디어종사자 전문교육 지원체계 구축, 남녀평등 우수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의 과제들은 그 이전까지의 과제들과 거의 비슷하다. 의식변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형성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고 보면, 사실 새로운 시책과제의 설정보다는 지속적인 과제실천이나 실효성 확보 등이 더욱 중요하리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그렇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보다 실천적 형태의 새로운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은 아쉬운 측면이다.

2절 국제적 동향

1.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는 사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문화와 발전’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도 연관이 깊다. 유네스코는 오랜동안 인간노력의 광범위한 목표와 문화의 연계를 강조해왔다.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문화정책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최종선언의 기본원칙은 문화정책에 대한 멕시코시티 선언이라 칭해졌는데, 여기에서 “문화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한 사회나 사회적 그룹을 특징지우는 정서적 특성의 전반적인 혼합물”이며 “예술과 문학 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규정되었다.¹⁹⁾

이후 유네스코는 젠더와 문화 그리고 개발의 관련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개발에 있어 문화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이해 뿐 아니라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주면서 문화와 젠더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화되어오고²⁰⁾ 있다는 것

19) www.unesco.org/culture/laws/stockholm/html_eng/actionpl1.shtml,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p.1.

20) www.unesco.org/culture/policies/ocd/html_eng/chapter5.shtml, Our Creative Diversity, chapter 5. Gender and Culture, p.1-2. 문화와 젠더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화되어, 문화적 진정성이라든가 차이 등의 속성은 다양한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

이다. 어떠한 사회든 절반만 해방되고 다른 절반은 속박되어 있다면 진보할 수는 없으며, 만약 여성이 문화를 구성하는 평등한 일부가 아니라면 어떠한 문화도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1995년 유네스코 인간개발보고서가 단언했듯이, “인간개발은 만약 젠더화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젠더 불평등이 지속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화가 지속된다면 문화적 조화란 확신할 수 없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와 발전에 대한 세계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여성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구 및 훈련기구(INSTRAW)와 UNDP와 협력하여,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영역에의 여성참여전략을 강화하는 국제적 행동계획을 준비하도록 권장하였다. 문화적 이슈들이 포괄된 성인지적 개발계획을 위한 세밀한 수단들이 포함된 이 계획은 여성을 일깨워 문화생산자 및 규정자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자각케 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었다. 경제적 및 세계적 변화의 맥락에서 여성의 문화적 역할이 상세히 설명되었던 영역들은 특히 다음과 같았다.²¹⁾

-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식의 수집과 전달
- 예술과 기술, 시 그리고 구전에 여성문화 기여
- 대중매체와 예술에 여성의 창조력
- 과학, 교육, 대중서비스, 예술과 대중문화에 있어 여성의 선도와 혁신 및 기여 등에 대한 고취
- 문화와 개발의 점점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그룹을 위한 격려와 촉진
- 모든 분야와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
- 여성과 건전한 문화
- 여성과 기업문화
- 여성에 의해 주도된 여성 우호적 행동의 문화역할모델 합법화

이같은 배경 하에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발을 위한 문화와 대중매체 정책에 대한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의 공무원과 문화적 지도자 및 예

의 정치적 무기의 일부가 되었음.

21) www.unesco.org/culture/policies/ocd/html_eng/action4.shtml, Our Creative Diversity, Action 4: An International Plan for Gender Equality. pp. 1-5.

술가, 지식인, 학자 그리고 대중매체 담당자들이 참가하여 인간개발의 구조내에서 문화정책을 서로 고치는 실행적 방식을 탐구하였던 이 회의를 유네스코가 개최한 목적은, 국제적 그리고 국가단계에서 인간개발전략에 있어 문화정책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과 문화정책에 강력한 유네스코의 기여를 돕는 것 두가지였다.²²⁾

‘여성과 문화정책’에 관한 주목할만한 원칙이 제시된 것도 이 회의에서였다. 예술과 대중매체 그리고 문화보급에서 젠더의 관련성과 평등성의 문제에 대한 다섯개의 주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의 증진 뿐 아니라 젠더평등과 관련된 문화 대중매체 정책의 평가를 위한 안내와 지침서로서 사용되도록 권장된 것이다. 다섯 개의 주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았다.²³⁾

가. 평등(EQUALITY)

- 여성은 문화정책, 예술 및 미디어에 있어 의사결정지위에 접근해야 하며,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고,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녀야 함.
- 또한 보다 많은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어야 하며, 남자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
- 유네스코는 미디어에서의 젠더고용에 대해 출판된 것과 유사하게 예술과 문화분야에서의 여성의 노동지위에 대한 범세계적 연구를 기획함.
- 사회적이고 합법적인 틀에 특별한 관심이 두어져야 함.

나. 다양성(DIVERSITY)

22) www.unesco.org/culture/laws/stockholm/html_eng/index_en.shtml,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The Power of Culture, ppl-2.

23) Danielle Cliche, Ritva Mitchell, Andreas Joh. Wiesand(1998), “*Preparatory Paper: Women and Cultural policie*”, European Research institute for Comparative Cultural Policy and the Arts,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UNESCO.

- 가치와 견해의 상이함 등 여성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여성들간의 차이는 인정·지지되어야 하며, 모든 문화적 생활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
- 다원주의(Pluralism)는 새로운 세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임.
- 텍스트와 교과과정은 맹목적인 국가주의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수시로 국가에 의해 개정되어야 하며, 사회내 서로 다른 그룹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을 포함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대학이라든가 여타의 중요한 공적 기구들에 있어 고위직 남녀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변화와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음.

다. 인식(RECOGNITION)

- 이는 인지적 현실과 감정적 면 둘다에 관련함.
-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과거로부터 현재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인정되어야 함.
- 사회는 종종 충분히 인정되지 못해온 지난 세대 여성들의 재능이나 표현 및 기여경험 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정부는 예술과 문화 및 미디어내 여성의 성취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미디어조직이나 여러 커뮤니티그룹과 함께 일해야 함.
- 여성예술가들이나 전세계의 미디어 모니터링 센터 및 미디어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명세화 작업과 같은 프로젝트는 지원되어야 함.

라. 투명성(TRANSPARENCY)

-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은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정보의 편견없는 생산성과 접근성 및 전파성 등에 달려있음.
- 양질의 미디어프로그램 기획과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창조적 다양성’ 고취

를 위한 선행조건임.

- 네트워크는 비위계적, 비관료적 방식, 따라서 검열을 벗어난 의견이나 관점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상적으로 기능해옴.
- 여성네트워크에 대한 공적 및 사적지원이 장기적 지속성에 중요함.

마. 생산성(PRODUCTIVITY)

- 경제적 발전은 문화적 발전 못지않게 창의성과 혁신에 크게 의존함. 미디어나 뉴테크놀로지와 같은 분야에서는 특히, 생산성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여성은 소비자나 저임노동자로 시장에서 자신의 경제적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역할과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옴.
- 그같은 노력은 순수한 시장요구에 반하는 개인적 창의성이나 재능 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요구와의 조정을 필요로 함.
- 정부는 예술이나 문화교육 및 미디어 등에서 생산성의 예를 적용함으로써 평등성을 제고하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함.
- 이들 영역에서의 여성의 창의성, 또한 교양교육과 같은 영역에서의 특별한 재능 등의 결과는 여성의 지위를 강조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이같은 목표를 향한 일반적인 공공의식을 높임으로써 젠더 평등성과 같은 추상의 정치적 원칙을 생활에 가져오게 할 수 있음.

이후 여성문화정책에 있어 위의 다섯 원칙은 기본적으로 준용되어왔다. 예컨대 참여정부 출범시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을 비롯한 8개 여성문화 관련단체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정책을 위해 새정부에 제안한 문건²⁴⁾에서도 이 원칙은 향후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회발전에 있어 문화의 위상에 관한 유네스코의 노력은 여성과 문화에 관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외, “새정부 양성평등 문화정책 제안”, 2003. 2.

2. 여성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외국의 정책동향²⁵⁾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형’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지식 및 인성교육의 전면 재조정을 위해 문화예술의 통합적 기능이 필요한 시점에서 여성주의적 문화예술관점의 확립 혹은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에서의 문화정책 방향 설정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간략하나마 외국의 문화정책 속에 보이는 여성관련 문화정책방향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성문화정책이라는 범주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정책기저에 ‘양성평등’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그 접근방식이나 정책적 방향은 약간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경우 모든 국가정책에 ‘양성평등’이라는 기본인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의 현실 또한 비록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여성고용상태, 사회적 상황, 소득수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거나, 여성참여의 증대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 오스트리아²⁶⁾

여성은 소수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사회적 집단을 뜻하는 ‘문화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다루어진다. 문화

25)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제시된 자료(손경년, 부천문화재단 정책실장)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본 자료의 출처는 Council of Europe/ERI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2 중 'Gender equality and cultural policies' 파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6) Site of the Austian Government : <http://www.austria.gu.at>
Almhofer, Edith;Lang, Gabriele;Schmied, Gabriele; Tucek, Gabriela(2000): Die Hälfte des Himmels. Chancen und Bedürfnisse kunstschafter Frauen in Österreich. Vienna: deASkriptum)

분야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으로서는 당초 여성문제와 소비자보호부에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한 대안적 정책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성 공정성문제(gender fairness issues)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성평등 고용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책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2000년에 이르면서 여성문제는 사회복지부(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s)로 이관되었는데, 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주로 다루는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술, 미디어, 광고 등의 영역에서의 여성의 고용상태- 상위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고용상태
- 여성예술가의 사회적 상황
-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 등
-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비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나. 캐나다²⁷⁾

양성평등과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활동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총체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구로는 Status of Women Canada(SWC)가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과 문화에 관련된 주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의 문화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고양
- 캐나다 역사에서의 기념비적인 여성 발굴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여성 지원
- 예술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육성
- 스포츠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 개선
- 공연예술영역에서의 소수민족 특히 여성에게 직면하고 있는 장애 및 고용

27) Status of Women Canada : <http://www.swc-cfc.gc.ca/direct.html>

장벽 제거

- 문화적 정체성의 표명 및 다른 이슈 및 그들의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주민 여성들을 도움.
- 캐나다 정체성에 대해 여성들의 진보적인 기여
-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수립
- 모든 민간 방송국은 캐나다 방송심의위원회(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에서 관장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역할 묘사 규칙’(the Sex Role Portrayal Code for Television and Radio Programming)을 고수해야 함.

다. 핀란드²⁸⁾

핀란드는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을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경여성회의 이후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성 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성평등법(Equality Act of 1995)을 제정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the 1997 Government Programme on Equality-“From Beijing to Finland”)이 마련되었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노동이 함께 하는 삶(working life), 의사결정 메카니즘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s)나 지역위원회(municipal boards)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28)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http://www.minedu.fi/mainedu/index.html>

라. 프랑스²⁹⁾

2001년 무렵 프랑스에서 문화예술영역의 여성노동력은 45% 정도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많이 고용된 영역은 잡지출판, 소매업, 공연장 운영, 사서(전체 사서의 75%) 등으로, 신문편집, TV제작 및 방송, 건축, 언론사 등의 영역에서 2/3를 차지하는 남성의 경우와 비교된다.

전문직업 음악인의 대다수가 남성인 속에서 단지 연주자의 24%가 여성이었다. 클래식 영역에서(클래식, 오페라, 현대음악) 여성연주자는 42%이나 비클래식 영역(락, 재즈, 경음악, 댄스뮤직 등)에서는 17%에 불과하였으며, 임금에 있어서 여성연주자는 남성에 비해 덜 받고 있었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프랑스의 거대 기업들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속성상 문화영역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마. 스웨덴³⁰⁾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은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더 나아가 이는 성인교육, 조직활동의 영역내의 수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이라고 정의된 바 있다.

성주류화(Mainstreaming)는 양성평등을 향한 스웨덴 정부의 주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이며, 이때 성주류화란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고 있다. 스웨덴 문화정책에서 젠더에 대한 관점은 다음의 세 측면에서 유지된다.

- 전문직업예술과 예술가 정책
- 관객으로서의 시민
-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29) Ministry of Culture : <http://www.culture.gouv.fr>

30) Ministry of Culture/Kulturdepartementet: <http://www.kultur.regeringen.se>

사회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수를 통해 보면 여성참여가 많지만, 여전히 높은 지위나 사회적인 위세가 큰 지위의 점유는 남성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단위에서 또 뮤지엄 분야에서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 가령 200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영역에 여성책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다. 이밖에 예술지원위원회(The Arts Grants Committee)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지원금지급을 분석하고 있다.

바. 네덜란드³¹⁾

1980년대에 평등에 대한 논쟁은 전문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이 논쟁은 소위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를 자극하였으며,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를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90년대에 이 논쟁은 여성에서부터 소수민족(여성과 남성을 포함)의 문제로 옮겨왔다.

2000년에 발간된 ‘2001-2004, 조우의 측면에서 본 문화’(‘2001-2004, Culture as Confrontation’) 보고서에서 제기된 것은, 더 많은 공간을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연장, 뮤지엄, 기타 다른 공연장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조우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충분히 사용해야 하며, 문화기관, 기업, 자문기구, 기금운영기구 등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정책수단에 의한 평등의 가능성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異문화의 평등한 가치, 문화순환의 평등, 지원의 평등 등이 촉구되고 있다.

사. 영국³²⁾

평등기회 위원회(UK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네 개의 지방정부(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각각

31) *Culture as Confrontation. Cultural Policy 2001-2004*, Zoetermeer,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2002.

32) Site of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http://www.culture.gov.uk>

의 정부가 성차별 제거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다. 가령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나온 ‘평등전략’(Equality Strategy)에서는 평등이라는 이슈를 모든 스코틀랜드 정책입안의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여성과 문화에 관련하여 문화매체체육부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공포가 없는 삶’(Living Without Fear)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 폭력, 포르노에서의 DCMS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문화매체체육부가 폭력에 대해 미디어를 통한 주도를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절 소결: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1)

이제까지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로서, 그간의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 있어 문화분야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유네스코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온 국가적 개발전략에 있어 문화적 개입 및 선진 외국의 여성관련 문화 정책을 통한 국제적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문화정책 범주 또는 영역의 확장과 관련한 사항이다. 앞서 본대로 그동안 여성문화정책은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성평등한 미디어활동,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등의 범주를 기본틀로 하여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이는 곧 여성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화적 관심사가 무엇보다도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시급성과 여성들의 다양한 자기표현활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두어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같은 인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여성문화정책의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과제설정의 단계에 있어서 지난 수년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된 과제와 사업의 면면에 관한 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근들어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유산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채택되고 있음은 이같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되, 문제는 정책영역으로서 보다 분명

한 자리매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제 및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성의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이며, 여기에는 ‘권리’와 ‘복지’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³³⁾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향유 시설 확대와 같이 이제까지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은 주로 복지적 측면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소외계층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든가 문화교육 등 기본적 권리로써 문화권 확대를 위한 과제가 여성문화정책으로서 적극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문화정책의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 앞의 지적사항과도 결국에는 연결되겠지만, 그러나 여성과 문화에 관한 시각조정 필요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정책에 있어 문화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여성정책의 출발과 궁극적 도달점은 모두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리매김되지 못한 문화환경으로부터 여성문제가 배태되었듯,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실현이야말로 여성발전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대안문화활동으로서 이른바 ‘여성문화’운동이다. 현상적으로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활동 중 하나이지만, 남녀가 평등한 새로운 문화창출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문화활동에 강력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여성문화’운동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화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진출을 확대하는 일이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비단 문화분야 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친화적이지 않던 분야에서의 성인지 정책이 적극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 등까지 강구할 필요가

33) 최준영,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문화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문화포커스, 문화연대, '03. 7. 30.

있다.

넷째, 정확한 목표와 추진사업 등 정책과제를 명료화할 필요가 크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다. 문화가 갖는 불가시적 특성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가 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의 일부 문화분야 과제에 대해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마저 과제의 추상성을 이유로 실행불가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던 경험은 좋은 예다. 정책이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것인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개발하는 일의 시급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Ⅲ



지역의 여성 문화활동 사례조사

1절 조사개요	44
2절 조사결과	46
3절 소결 : 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2)	66

지역의 여성 문화활동 사례조사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일반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지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화정책 과제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실시한 것이다. 여성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제까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문화예술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예술가와 예술집단에 대한 지원과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 정책부처는 그사이 명칭이 바뀌긴 하였지만 전자가 문화관광부라면 후자는 여성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그리고 일상생활속의 문화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의집과 문화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혜대상은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여성회관 등에서 문화관련 교육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부문을 특화하기 위한 여성문화회관 설립이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구(군)민회관, 시민회관 등에서도 주로 문화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강좌의 수혜대상은 주로 전업주부 중심의 일반 여성들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 고객이 되고 있는 문화교육(강좌)의 현장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미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에서 강조된 바 있는 ‘여성에 대한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서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사례조사를 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문화교육(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들 기관(또는 단체)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여성문화정책 과제개발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성을 문화 인력으로 어떻게 자원화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로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여성문화정책 과제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또는 단체)에 더 잡고 혹은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문화활동 저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소모임들은 어떠한 양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사례를 게재함으로써 최근의 지

역 여성들의 문화활동 현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절 조사개요

일반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진행된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내용 등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 여성(문화)회관 등 : 부산 부산여성문화회관,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 인천 인천여성문화회관, 성남 성남여성문화회관, 광주 여성발전센터, 경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서울 동부여성발전센터
- 문화기반시설: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삼성미술관, 대구 영남대박물관, 경기 토지박물관, 경남 밀양문화의집, 경남 진영문화의집, 광주 광주북구문화의집, 대전 유성도서관
- 문화재단: 부산 부산여성센터, 경기 부천문화재단
- 자원봉사기관: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송파구자원봉사센터
- 여성문화소모임(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화소모임이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전광역시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돼지꿈(연극), 썩과 마늘(문학), 동화 읽는 어른모임(책읽기), 색동어머니회(동화구연), 중앙풍물단(풍물), 사랑이 꽃피는 엘리베이터(생활문화), 예랑회(춤과 노래)

2. 조사내용

비구조화된 질문지(부록 참조)를 통해 접근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첫째, 일반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여성(문화)회관 등에 대해서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중점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운영책임자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여성문화에 대한 개념설정과 그에 따른 여성문화관련 프로그램과 문화동아리 활동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여성들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제언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둘째,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점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성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성문화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여성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성들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는 어떠한 것인지, 여성문화 소모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정책제언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셋째, 문화소모임을 통한 문화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봉사자제도를 운영하게 된 계기, 봉사자의 숫자, 봉사자 가운데 여성비율, 직원들 가운데 여성비율, 봉사자제도에 대한 자체평가와 방향, 특히 여성을 염두에 두고 배려된 부분, 운영에 있어서 성평등한 관점을 필요로 하는 부분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2절 조사결과

1. 사례조사에 따른 일반적 함의

가. 운영프로그램

여성(문화)회관과 각종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양강좌’, ‘문화교육’ ‘문화·기술교육’ ‘문화교양교육’ ‘기술·생활문화교육’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는 40-50여개의 강좌가 3개월 혹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월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시설로 조리실, 실습실, 어학실, 컴퓨터실, 강당, 어린이집(탁아실) 등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 수영장, 헬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수강료의 경우 문화의집, 박물관대학 등도 월1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 기관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 교육의 경우는 거의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악기연주 및 노래 : 기타, 크로마하프
- 만들기 : 도자기, 손뜨개, 닥종이인형, 공예, 꽃꽂이, 홈패션 등
- 조리 : 생활요리에서부터 전문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리사 과정
- 미술 : 수채화, 사군자, 서예, 데생, 동양화, 서양화, 사진 등
- 어학 :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등
- 컴퓨터관련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 워드 등의 기초교육에서부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
- 춤 :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설장구, 한국무용, 발레
- 건강관련 : 수지침, 발마사지, 생활요가 등

강좌 수가 50여개가 넘는 곳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듯 음식, 미용, 의복, 공예 부문에서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의상디자인,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및 미용, 보석디자인, 패션, 디지털영상편집, 문화해설사 등의 강좌가 있다.

나. 여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단체 이외의 문화공간에서 주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 또는 문화영역에서 여성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우도 여성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여성의식을 강조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유치 또는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편이다.

여성문화소모임 사례조사에서 대전여민회의 여성극단 ‘돼지꿈’에서 호주제, 자매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문화모임인 ‘쭈꾸미 마늘’에서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려할 뿐 다른 소모임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의미로서 여성의 세력화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여성문화’ 또는 성인지적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삶을 반영해내는 작업은 간혹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의 경우 ‘이미지 산책’, ‘음악카페’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진으로 음악으로 여성 삶 읽기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삶도 녹아나올 수 있었다. 예술장르로 접근하기보다는 테마 설정에 따른 접근으로 그 과정에서 여성의 삶 읽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다. 여성들의 문화활동 자원화

여성(문화)회관 등과 각종 문화공간에서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전문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관련 기관에

서는 여성들간의 유대와 지역사회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종 문화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자원봉사자 등의 제도는 문화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지역에서 여성(복지)회관 또는 여성발전센터 등과 구별되는 문화적 속성을 강화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 대구의 경우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으로 전문화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문화자원봉사 역할을 전문화하고 있다.

문화의집,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과 자원봉사센터 역시 문화영역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로 유도해내거나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인력으로 부상되고 있다.

일부 여성(문화)회관 등은 강좌중심의 교육이외에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교육(여성문화기획자 과정 등)을 도입하는가 하면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연계된 교육(IT/CT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역내 문화기관과의 공조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 여성 문화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최근 지역사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성중심의 문화소모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전이라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³⁴⁾ 정리하였다. 연극, 문학, 책읽기, 동화구연, 풍물, 음악과 춤, 생활문화 영역 등에서 여성들은 소모임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모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소양이 있는 여성들은 남에게 내놓고 표현은 못했었지만 연극, 음악, 문학 등 분야에 각자의 꿈과 미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34) 이는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의 편의성때문일 뿐, 특별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님.

하고 있을 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느끼고 있는 강한 삶의 충동, 살맛난다는 일들이 각각 다른 편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일, 결혼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이 없어져가고, 인생의 의미가 희석되어 갈 때 자신의 꿈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이렇게 자신 속에 감춰져있는 끼가 하나의 문화적 행위로 발현될 때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새로움으로 활력 있게 살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다. 그 활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꽃 피우기까지에는 좌절도 있고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가 아닌 모임의 회원들이 서로 다독거리며 손 맞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의 힘(empowerment)이 되고 있었다.

부산여성센터는 여성문화회관 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문화동아리를 비롯하여 여성문화동아리를 발굴하여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세력화를 도모하고 여성들의 문화자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 여성들의 문화 소모임 유형별 사례

사례1: 연극 모임 - ‘돼지꿈’

대전여민회의 여성극단 ‘돼지꿈’은 연극을 통해 여성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알리는 문화적 행위이다. ‘돼지꿈’을 꿔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겠다, 좋은 일이 생기겠다, 복권 사 놓아라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오랫동안 우리들이 잠들기 전 바라는 꿈이었고, 그 꿈을 여성들이 꾸겠다고 극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잃어버린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 이야기를 꾸며보기 위해 여성극단 ‘돼지꿈’은 1997년 12월에 창단되었다. 4년여 동안 직장내 성희롱문제, 실직여성 가장들의 현실 등을 극화하여 1년에 한편씩 모두 4편의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렸다.

극단이라 하여 인원들이 많지도 않다. 미혼, 기혼여성 6명이 만들어가

고 있다. 하나의 연극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회원들이 의논하여 한명이 대본을 쓴 다음 그 대본을 놓고 모두 토론을 해가면서 수정하여 대본을 만들고, 무대장치, 무대소품 등도 모두 각자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 프로연극처럼 무대가 화려할 수 없다.

그러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 까지 전과정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회원들 가운데는 전업주부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이라 모두들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회원들 가운데 38세의 한 전업주부와 인터뷰 했다. 학교시절 연극반 회원이었다가 작년 한발문화제때 대전여민회에 여성극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민회를 찾아왔다고 한다. 이 나이에 연극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연극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체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시간제약이 가장 큰 좌절이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원들은 서로 도와주었다.

여성모임 고유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전문가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여성들간의 유대, 연대감이 서로를 강하게 해 준다. 그곳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더 긴 말이 필요없이 서로 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자매애’(sisterhood)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어쨌든 “배짱이 맞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며 한 회원은 말한다.

사례2: 여성문학모임 - ‘쑥과 마늘’

동굴속의 어두움과 배고픔을 견디어내게 했던 쑥과 마늘은 꿈을 사람으로 바꾸어놓은 유일한 매개체이다. 상징적인 그 이름을 따와 여성문학모임의 이름으로 만들었다. 모임의 회원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여성문학’ 강의를 들었던 이들은 여성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였고, 1995년경부터 모임을 가져왔다. 그러다 98년 2월에 정식으로 이름을 지었고 일년에 한번씩 동인지를 발간하기로 했고 약속대로 99년에 1집, 2000년에 2집, 2001년에 3집, 2002년 4집, 2003년 5집을

출간하였다.

시와 수필, 단편소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쑥과마늘’ 동인지의 제목은 [나의 나무를 찾고 싶다], [삶의 모서리를 치유하는 고향], [함께 걷는 길], [그대 생각] 등이다.

10여명의 동인들은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글들을 발표하고 평을 해주기도 한다. 나름의 고통을 견디며 써온 글에 대해 평을 듣는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함께 길을 걷는 동인이기에 가능하다. 이들은 일년에 두 번은 1박2일의 문화유적답사를 가기도 하고 함께 연극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전지역의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들을 답사다니고 있다. 비슷한 문학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이니만큼 할 이야기도 무궁무진할 것이니 재미있을 것이다.

1998년 여름에는 백두산에 올랐다. 연변 용정지역에 가서는 윤동주 묘를 찾아나서기도 했다. 윤동주의 묘는 공동묘지에 있어 선뜻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순전히 감으로 찾아냈다고 한다. 30-40대 주부이자 대학강사, 교수들인 이들 여성동인들은 여성, 생태, 영성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며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시, 수필, 단편소설 뿐 아니라 좀더 체계를 갖추어 여성과 문화 전반에 걸친 동인지를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자면 대전지역에서 여성과 문화에 관심있는 여성들이 의기투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좀더 많은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늘리고자 일년에 한번씩 발간했던 동인지를 일년에 두 번씩 발간하고 대전지역 여성삶의 과거와 현재를 집중하여 다룰 수 있는 특집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례3: 책읽기 모임 - 대전 동화읽는 어른 모임

현재 구립 도서관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전 동화읽는 어른모임은 199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정회원이 120여명 된다. 숫자로만 보면 단체의 숫자치고는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알짜배기 회원들이다. 이들 회원들은 구립도서관인 유성구의 유성도서관, 대덕구의 안산도서관, 서구의 갈마도서관, 동구의 용운도서관 등에서 매주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읽을 동화를 어머니들이 읽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모듬’ ‘갈래’ 등이라 표현하는 소그룹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중적인 강좌를 통해 이 모임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정회원으로 되기까지는 어려운 코스를 거쳐야 한다. 10회 정도 자체 신입독서교육을 거친 다음에는 6개월 동안 한국동화의 고전에 해당하는 방정환, 마해송, 이주홍 선생님 등의 한국창작동화만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는 ‘갈래’ 별로 그림책, 우리나라 창작동화, 외국 창작동화, 환경, 과학, 역사, 청소년 도서, 그리고 옛이야기를 중심으로 또다시 6개월간 공부를 하게 된다.

1995년 이 모임이 대전에 만들어진 이후 적어도 일년여간은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의 수가 120명이니 이야말로 알짜배기 회원들인 셈이다. 처음에는 내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줄 욕심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읽기 모임이 되었다.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들로 관점이 바뀌기가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고 더 깊게는 우리창작동화에 대한 민족정신도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어 회원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 단체라고 하면 사무실 하나 있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들은 사무실 하나 없이 지역 도서관의 방을 이용하여 지역의 세포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지역의 문화운동체이기도 하다.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읽게 해 주자는 데는 모든 어머니들이 동의한 부분이다. 그러나 막상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골라서 어떻게 읽히게 할 것인지에 가서는 막막해지고 선뜻 고르기가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은 책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마구 쏟아져 나오는 도서 앞에서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여 혼돈이 온다고 한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라면서 접했던 조악했던 환경과는 아주 달라진 환경에서 내 아이에게 좋은 도서를 골라서 읽힌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어머니들이 모임에 가입하여 우선 나부터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읽어보기 시작한 것이

모임의 태두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시민 정신으로까지 끌어올려졌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지자체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구청장 후보들의 도서관 인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책읽기만을 하지는 않는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문화 전수를 한국전래동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극단 사다리의 ‘팔죽할멈과 호랑이’ 같은 극 공연을 열기도 하고 동화 작가와 그림책작가 초청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작년 11월 10일에는 [짜장, 짬뽕, 탕수육]의 작가 김영주를 초청하여 초등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모임이 알차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 동화읽는 어른 모임의 회장에게 물었다. 책읽기에 관심있는 주부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책읽기를 하다가 그것이 내 공부가 되고 내 삶의 희망이 되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얻었고 사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등 등 그러한 것들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례4: 동화구연 - 대전색동어머니회

색동어머니회는 동화를 읽어주되 전문가의 목소리로 연출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이다. 이들은 전직 성우, 리포터로 활동했던 여성들로 자유 자재로 목소리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이 들려주는 동화는 동화 책에 썩어져 있는 문자 그대로만 읽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도록 극적인 억양과 목소리 표현해 준다.

색동어머니 동화구연가회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단체이다. 대전에 색동어머니회가 만들어진 것은 1997년이다. 내실있고도 아름다운 여성문화모임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들은 동화를 아름답게 이야기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화의 이야기를 현실로 옮기고 있다는데 있다.

50 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이들 모임은 저소득층 맞벌이자녀들의 공부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장애어린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노인들을 찾아가 동화의 꿈을 전달해 준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꿈을 동화에서 꼬집어내고 전래 민담에서 끌어내면서 제각각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동화속의 이야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환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준다고 한다.

학령전 아동에게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글을 읽힌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끌어간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여 발표력을 키우도록 유도해나감으로써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추어 들려준다. 또 영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단어와 접속사 훈련을 위해 정확한 발음 익히기 위주로 이야기를 해준다. 노인들을 위한 동화구연은 누워서 옛날 이야기 듣던 식으로 해주는데, 70대 회원은 노인정에서 이런 식으로 동화구연을 해준다.

대전색동어머니회 회장은 동화구연은 “눈높이로 보다는 가슴높이로 들려준다”고 한다.

97년 4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대전색동어머니회는 이제 어엿한 50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회원은 어머니구연대회에서 선발되어 계속적인 활동과 재교육으로 전문성을 가다듬어가면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들은 10여편의 인형극을 만들었고 4편의 뮤지컬을 만들었다. 회원들의 창작극이기도 한다. 이러한 레퍼터리로 일년동안 인형극 20회, 뮤지컬 20회 순회공연을 한다. 회원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고 소품을 제작하고 조명와 음향까지 다룬다.

뮤지컬 한편 제작하는데 천만원 가량의 돈이 든다고 한다. 회원들의 월회비 1만원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색동어머니회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들 후원자들 역시 회원들에 못지 않게 동화에 대한, 동화이야기 들려주기에 이 시대의 희망을 걸고 있기에 선뜻 성금을 내어놓고 그것도 매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사례5: 풍물 모임 - 대전 중앙풍물단

여성들로 뭉쳐져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대전 대덕구 풍물단의 정확한 명칭은 대덕중앙새마을금고 풍물단이다. 1996년 새마을금고는 풍물, 꽃꽂이, 탁구, 일어, 영어 등의 취미교실을 열었다. 이 취미교실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풍물을 배웠던 주부들 주축으로 1997년 9월 풍물단이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하고 있다.

요즘은 각 구의 동마다 풍물단이 만들어져 행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1997년도에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풍물단이 만들어진 것은 대덕구가 처음이었다. 이제는 대덕구가 자랑하는 풍물단이 되었다.

4-50대 주부들 25여명으로 구성된 대덕 중앙풍물단은 매해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크게는 지난 10월 17일 충주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제에 대전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월드컵 행사를 위한 거리축제, 한밭문화제, 신탄진 벚꽃축제 등의 큰 행사에서부터 노인정, 복지관 등의 애경사에 이르기까지 활동무대가 다양하다.

대덕구가 자랑하는 주부풍물단으로 자리잡기까지는 회원들간의 똘똘 뭉친 결속력이 바탕하고 있다. 6여년이 흐르는 동안 이 풍물단을 거쳐간 사람들만도 100여명이 된다고 한다. 창단멤버이자 지금까지 풍물단을 이끌고 있는 김문희 회장에게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결속력을 유지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지 물었다.

서양음악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우리가락을 찾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것이야’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 너무 신이 나고, 우리 가락을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런 엄마가 되었고, 내가 좋아 놀아보는 것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흥겨움을 전해줄 수 있으니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가끔 힘들어 도중하차하게 되는 회원들이 안타깝지만 언제나 30여명의 회원들을 유지해내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는데, 한번은 선생님을 모시고 훈련을 받고 한번은 자체적으로 모여 연습을 한다. 연습장소, 감사비, 악기구입 등을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지원해 주고 있다.

북, 장구, 팽가리, 징, 소고 등의 분야로 나누어 맡고 있지만 오래된 회

원들은 어느 분야든 소화해 낸다. 더 잘하기 위해 얼마전에는 대덕문화원이 주관하는 소고춤 반에 들어 소고춤을 익혀 수료식 때 발표하기도 하고 탈춤과 상무를 배워 다양한 기량을 익히고 있다.

서양음악을 전공했었고 교직생활도 했던 회장의 경우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은 상태에서 우리 가락에 대한 관심이 우연히 강좌를 찾게 되었고 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가게 되는 마력을 느끼어 이제는 생활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고 한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취미삼아 배우겠다고 하면 마다않고 달려가 가르쳐주는 열정과 우리가락에 대한 열정이 회원들을 뚝뚝 뭉치게 했다고 전한다.

사례6: 음악과 춤모임 - 예랑회

예랑회는 순전히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문화모임이다. 이름도 예술 ‘예(藝)’자에 무리 ‘랑(浪)’이다. 예술을 즐기는 무리란 뜻이다. 작년에는 문화원의 공간을 빌려 발표회를 열었다. 20여명의 회원 전원이 발표에 참여하지만 관객은 오로지 남편들뿐이다. 이제 아이들도 커서 타지에 나가있고 그렇다고 친구들도 초대하지 않고 남편들만이 부인들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지켜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각자가 만들어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송년회를 보냈다고 한다.

45세에서 50세 가량의 주부 20여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랑회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7년가량 되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 시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년 전 유성구 도룡동 지역에 연구단지 직원들의 가족들이자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만났던 이들은 학부모회 합창단원으로 서로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합창을 함께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 학부모활동이 모태가 되어 서로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음악을 익히기 위해 합창단의 이름을 예랑회라고 짓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합창연습뿐 아니라 고전무용도 익혀보자 하여 고전무용 연습도 하곤 했지만 너무 어려워 실력이 늘지 않자 재미가 없어지면서 활동적인 스포츠댄스로 바꾸어 얼마 전부터는 스포츠댄스 1시간 한후 합창 1시간 이렇

게 연습하고 각자 싸운 점심을 먹으며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다.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회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예랑회 회원들은 2년에 한번 꼴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한다. 정식 무대조명은 아니어서 무대와 관객의 조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대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오십이 되어가는 부인들의 댄스와 합창을 보고 듣고 있을 남편들을 상상해보면 쑥스러울 것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십여 년 넘게 이루어지다 보니 모두들 함께 즐기는 문화활동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 보여주기 위해 하는 문화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문화활동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 여럿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이다. 문화활동에도 이념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만 의미를 두어왔던 것 역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스스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었을 때만이 사회적인 문화활동에 의미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스스로 즐기고자 함께하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20여명이 모여 매주 한번씩 만나는 정식 단체인 만큼 조직운영의 비결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0여명이 매사에 한목소리로 낼 수는 없지만 이들은 작은 안건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내며 일단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들 따르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간혹 오해가 있어 이탈하게 되더라도 모두들 합세하여 끌어냄으로써 되돌아오게 한다. 오랜 동안의 친분이 바탕 된 것이기도 하다.

매주 월요일 오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스포츠댄스와 합창연습을 하는 이들 주부들 역시 모두들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임을 인생의 제1순위에 놓음으로써 타지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대전내에서 어디서 살든지 간에 연습장소로 오게 된다. 종교적인 단체도 전문적인 예술단체도 아니면서 자신의 삶의 1순위에 합창모임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결속력이 높다. 집에서도 유일하게 외박이 허용되는 모임이라고 한다.

검소하고 허황되지도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문화적 행위를 즐기다가

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시민이 아닌가 한다. 멋있게 늙어가는 중년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합창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예랑희의 회장에게 물었다. 알토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등의 파트가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만이 합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튀는 음색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조화로운 음울을 맞추어 나가다보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배어나오게 되는 관용과 조화가 이 모임을 끌어나가는 힘이 된 것 같다고 한다.

사례7: 생활문화모임 - 사랑이 꽃피는 엘리베이터

삭막한 인간관계가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바꾸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랑이 꽃피는 엘리베이터 만들기’ 모임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바꾸어가고자 하는 여성생활문화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10월 대전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고 한다. 대전YWCA가 이 모임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파트의 주민이자 이 모임의 취지에 동감하여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눔이’라고 한다. 이 나눔이들은 엘리베이터에 작고 예쁜 게시판을 걸어둔다. 그 게시판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문구를 만들어 붙인다. 내용은 매주 바뀌어준다. 수필에서 따오거나 시 한편,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혹은 소비자피해사례라든지 생활 속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야기를 실는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라 지루함을 덜어주고자 매주 내용을 바꾸어 준다. 광고문구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와 정보가 게시판에 실리는 것이다. 한번 부착하고 마는 게시판이라면 생활공동체 운동이 되지 않는다. 내용을 바꾸기 위해 나눔이들은 매주 모임을 갖는다. 나눔이의 집에 돌아가면서 또는 YWCA에서 모이기도 한다. 모임이 있을 때면 매번 이 운동의 취지문을 낭독하고 명상한 다음 느낌을 나누고 일주일간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슨 내용을 바꿀 것인지 의논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갖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게시판에 부착되는 내용은 매주 신선하고도 의미 있는 것으로 제공된다.

99년도에 처음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예쁜 게시판이다 보니 분실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때 나눔이들의 실망과 낙심은 컸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가야 한다는데 생각을 모으고 일단은 게시판을 다시 되돌려 주도록 며칠동안 호소문을 붙여놓기도 하였다. 그러자 의외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분개하였고 실제로 분실되었던 게시판이 나눔이의 현관 앞에 다시 되돌아 온 경우도 생겨나면서 하나 둘씩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쌓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이 모임을 갖고 있는 곳은 대덕구 송촌동의 선비마을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십여 곳이 된다. 이러한 운동에 동감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반상회 등을 통해 함께 나눔이 할 사람들을 모아 YWCA에 와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한다. 독자적으로도 이 운동은 가능하지만 하다보면 흐지부지 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경륜과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제시해줄 수 있는 YWCA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아파트단지의 좋은 사례, 좋은 내용 등 아이디어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YWCA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동참하게 되면서 이 운동의 취지를 더욱 다지게 된다.

2. 사례조사에 따른 정책적 함의

여성문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문화활동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93년 당시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출발점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의 문화활동을 통해 여성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에 두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욕구와 표현욕구를 발견해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며 그로부터 여럿이 상호공감과 공유의 과정을 거쳐 생활 속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힘을 얻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조사결과 여성들의 문화활동의 방향은 유형별로 구분지어졌고 그 유형들 간에 일정한 발전의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문화잠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여성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만족과 개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활동 집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실천과 실습, 상호공유를 중시하는 소집단 문화활동 집단이다. 네 번째 유형은 대안문화 창출을 위한 여성문화운동 집단이다. 이들 집단의 유형은 순서대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세 번째 유형에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문화관점의 개입이 요청되었다. 그렇지 않고는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에서 기존 문화제도내에서 소극적인 향유를 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³⁵⁾

여성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유형별 구분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유형별로 집단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네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양적 성장에 의한 질적 변화라는 상정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문화관점이 일반인으로부터 저항을 받았던 것 같으며, 여성문화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불분명한 페미니스트적 관점과 여성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 여성관련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사안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즉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가 기존의 여성생활양식을 강조하는 강좌형태로는 여가문화적 갈증을 채우는데는 기여하고 있으나 여성이 주체적으로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점, 문화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제 사회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지난 10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지적을 넘어설 만한 질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노력이 그만큼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큼 지나가고 있는 문화의 시대는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여성문화정책과 기관들의 대비가 부족했음을 반성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들을 위해 제공되었던 문화강좌들이 시대를 내다보는 비

35) 김양희 외, 앞의 책, pp. 173-180.

전으로 준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문화활동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의 획득과 더불어 여성고유의 감성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과 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더라면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인력으로서 힘차게 여성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가. 여성(문화)관련 공간의 역할

여성회관 등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문화시설들을 돌아보면 여성을 주 고객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을 단순히 문화소비자로 설정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할 만한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여성의 문화활동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었던 것도 아니고 여성을 문화생산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려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여가를 즐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지자체가 값싸게 제공한 문화강좌 또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은 여가활용에 목표를 두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가에 두었다.

그러나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주문과 더불어 문화산업인력을 비롯하여 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직종이 계속하여 창출되고 있음에 따라 여성문화활동을 다시 점검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분명한 목표설정은 없었지만 문화활동의 다수를 점해온 여성들의 시간적 물적 투여량을 본다면 문화인력 창출의 가능성 있는 잠재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문화잠재집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여성문화활동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과 여성문화를 선도해나갈 여성(문화)회관의 운영목표를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여성의 문화활동 발전단계를 보면 두 번째 유형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세 번째 유형에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더더구나 어렵다. 이 단계에서 여성의식(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강조하긴 했으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여성들이 연대하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의

개입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나열만으로 여성들의 여가를 메꾸고 실적을 높이려 했음을 인정해야한다.

1993년 연구의 후속으로 여성의 문화소모임을 강화하고 여성의식을 강조하는 [여성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여성개발원의 교육기능이 없어지면서 시범교육이 확산되지 못하였고, 또 다른 여성문제의 이슈화로 문화교육은 흐지부지 되어버렸으며 여성단체들조차 문화영역은 도외시되었다.

최근 들어 문화기반시설에도 문화마케팅, 문화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여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종전의 여성회관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종 훈련에 우선 목표를 두었다면 최근 문화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인력 양성에 우선 목표를 두는 것으로 특화하여야 하고 여성전용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나. 여성문화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설정

문화인력의 범주를 확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여성문화인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문화인력으로 문화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행정(경영)가 이렇게 세축으로 분류하였다면 이제는 문화인력의 범주에 문화자원봉사자, 문화수용자(교육생포함)를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문화수용자들이 곧 봉사자가 되고 봉사자가 전문기획자, 예술가, 예술경영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10년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의 여성문화활동 현황을 조사할 때만해도 여성문화활동자들은 교육강좌수강생과 문화예술가 이 두 축으로만 대별되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여성들이 문화와 관련한 교육이나 강좌를 통해 전문화를 기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문화강좌 수강생에서 전문강사로 전문문화예술활동가로 발돋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는 달리 문화인력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경계를 뚫고

확산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여성들에 대한 문화기획자 과정 등의 교육은 흡인력있는 스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은 직업으로 또는 문화봉사할 공간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미미한 듯 보이지만 현황들을 모아보면 앞날이 밝아지는 듯 하다.

부산여성문화회관이나 밀양 문화의집의 경우 수강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어떤 문화봉사를 할 것인지 진로선택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엄청난 차이를 벌려놓는다. 예컨대 각종 시설에서 사진, 그림, 사군자 등의 작품을 전시해줌으로써 문화환경도 조성해주고 양로원 등에서 사진을 찍어드린다. 꽃꽂이를 하여 지역의 병원환자들을 즐겁게 해준다. 한복을 배워 병원의 환자복 수선도 해준다. 한지공예, 어학 등을 배워 시설수용여성들에게 지도해준다. 전통다례, 사군자, 서예 등을 하여 노인교실에서 다도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지도한다.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강좌들이지만 이렇게 문화기획이 들어감으로써 교육생과 사회를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달학습을 통해 교육생들은 전문가로서 자질을 높여나가게 한다.

다.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여성(문화)공간 설정

기존의 문화교육(강좌)이외에 후속교육을 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동아리집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소모임이나 동아리 집단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리더십훈련 뿐 아니라 연대감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봉사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여성문화예술가 집단모임을 여성문화회관에 유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양한 여성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세 장르간의 독자적인 연계시스템도 고려해야한다. 즉 여성단체간의 교류, 문화기관이

나 시설간의 교류, 회관이라는 사회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여성주관을 맞이하여 여성영화감독의 영화를 상영하고 여성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이야기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주의적 영화를 인식하게 하였다.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사업들을 보면 기존의 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생활체육교육 등의 교육 이외에 교육생 지원사업으로 유아놀이방, 상담실, 장터의 운영과 동아리모임을 지원하며, 창업특강을 한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인터넷카페, 여성학 특강, 문화유적답사교실, 영화상영, 미술관 산책 등을 운영한다. 한편 특화사업으로 여성문화예술기획과 함께 여성문화전문아카데미 협력사업을 하며,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여성인터넷 쇼핑몰 창업교실과정을 운영한다.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여학생실을 연계하여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받아 전업주부 중심의 '문화해설사'반 교육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역사문화교육 강사로의 일자리를 만들어 활동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직업경로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문화교육 직종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라. 기관의 조직운영

여성(문화)회관 사업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복지기관의 사업과 겹치고 민간문화단체의 문화교육과 겹치게 됨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의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간의 지역분담 역할, 인근지역의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의 관계설정이다. 이러한 여건은 전국 어디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를 주 고객으로 함에 따라 한정된 주 고객층인 여성들(특히 낮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전업주부층)을 어떻게 유치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컨설팅의 측면에서 보아 지자체의 고유한 여성관련 사업이기도 한 여성상담과 직업안내, 자원봉사활동사업을 특화할 것을 권유하며, 문화프로그램은

타기관에 비해 약세이므로 이를 축소시킬 것과 한 지자체내에 여성복지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간의 지역안배를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여성문화’를 표방하는 특화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주장하고 싶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북부, 서부 등)여성발전센터의 강좌의 1/2 이상이 사실상의 문화프로그램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이며, 부산여성문화회관의 경우도 10년전 당시 공단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프로그램과 문화봉사영역의 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의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젊은 여성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야 하며,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으로 향하고 있는 고학력중산층 여성들을 흡수할 수 있는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한다.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고 여성문화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공받거나 맛볼 수 있는 매력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야한다.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사골문화센터나 안양디딤돌문화원이 운영하는 군포 문화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직접 또는 용역과정을 거쳐 지원해줌으로써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문화를 여성중심으로 끌여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이 남녀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 평생교육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상정해 보았으나 아직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감있는 사회와의 관계망 형성을 여성들이 합심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문화회관이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여성들의 평생 경력을 가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회관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야한다. 확고한 비전에 입각하여 민간문화기관(단체)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절 소결:향후의 여성문화정책을 위한 시사점(2)

지역에서 여성의 문화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사례조사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 문화활동 현황조사 및 문화욕구조사 : 조사대상 기관에서 많은 여성들(특히 전업주부)이 단순한 문화수용자 또는 문화교육수강자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봉사자로 또는 문화예술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또는 교육수강자에서 교육강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10년 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을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그 사이에 문화관련 기관들이 상당수 늘었났고, 문화교육수강자들도 일부 중산층 전업주부에서 확대되었으며 연령층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문화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와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성인지적 관점을 문화기관 운영에 도입 : 여성회관류(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는 여성들의 문화공간임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반면 다른 기관은 교육수강자들이 여성 대다수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딱히 여성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요망되는 사안이다.
- 여성문화공간에 대한 비전 설정 : 여성회관류 역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여성들의 문화전문인력으로 방향설정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문화+공간의 활성화에 제각각의 목표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명한 비전설정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문화의 시대에 대한 막연한 설정만으로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들로 젊은 여성들을 흡인하

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문화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자적인 여성문화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면 일정한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을 빼앗기게 된다. ‘여성을 위한’ + ‘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 + ‘공간과 시설의 다양한 활용’으로 기관운영을 해야한다. 따라서 지역내 연계프로그램 및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요망된다.

- 시설보완 :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부산여성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인천, 대구, 성남여성문화회관은 모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강좌도 듣고 수영도 하는 등 여성들을 이들 공간에서 좀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 여성문화관련 운영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들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전국의 여성회관장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뿐이라고 한다. 문화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여성수강자들에게 순발력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문화관련 운영자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 여성문화인력 확보 : 문화교실- 숙련반 및 예술단 - 문화자원봉사의 연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의 경우 10년간의 노하우로 35개 팀 41분야로 39개의 활용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량과 전문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부분에 있어서 문화자원봉사 영역을 넘어선 문화예술전문가와 문화기획자 양성으로 한 단계 높게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문화의 명칭을 갖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여성문화인력을 자원화할 수 있는 단계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자생적 여성문화소모임과 여성문화예술전문가 집단 등을 기관내 유치하여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여성문화인

력의 산실로 커나갈수 있어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인식 : 방문기관에서 만났던 기관장과 담당자들 가운데 영남대박물관, 광주북구문화의집,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다. 남성 면담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이 대다수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여성을 고려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토지박물관의 경우는 박물관대학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으로 고학력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 이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활동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송파품앗이’ 제도를 두어 지역주민 상호신뢰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생활문화형성에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 전문문화교육담당자 배치 : 삼성미술관이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자원봉사(전시해설봉사 및 자료정리봉사) 영역은 큐레이터가 담당하지 않고 에듀케이터(educator)라는 전문 인력을 둬으로써 기관운영과 홍보,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확보에 의한 운영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마케팅 차원의 이용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IV



여성문화정책의 체계

1절 여성문화정책의 목표	71
2절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73

문화는 흔히 정치,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요건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사회가 온전하고 균형잡힌 형태로 발전하려면 문화, 경제, 정치가 각기 구실을 제대로 하는 가운데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부산물로 간주되었던 데서 이제는 문화야말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데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참여정부의 출범은 기왕의 문화정책에 대한 양성평등적 시각에서의 검토를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사회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경향이다. 이는 곧 여성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며, 이 점에서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이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그동안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체적인 여성 문화활동의 사례 등을 살펴본 데 바탕하여, 여성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서 여성문화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과제들의 면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절 여성문화정책의 목표

양성평등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권리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표를 설립하고 인간성취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은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만 하고, 차별 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

해 표현의 권리와 자유의 여성평등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지위에 그들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성평등을 존중해야만 한다.³⁶⁾

이렇게 보면 여성문화정책이라고 문화정책과 달리 특정한 목표를 가질 까닭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인지적 정책으로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이 수립된 상태라야 가능할 일이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이란 정부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한 분야³⁷⁾를 가리킨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정책이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여성문화정책의 실체란 사실 중복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렇지만 문화와 발전에 있어 젠더관점의 중요성을 지적해온 유네스코의 오랜 노력이 시사하듯, 많은 나라에서 여성에 관한 정책과 문화정책이 존재하지만 양자의 결합에 의한 양성평등의 문화정책은 여전히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범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전략으로서 양성평등정책에 있어 문화적 관점이 부족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분야 정책에서 양성평등관점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여성문화정책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서 나름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여성문화정책은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분야에 있어 여성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여성정책 전체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이라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정책에의 성주류화 측면에서 여성과 문화의 접점에 주목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도 물론 필요하다. 이같은 사항 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에 앞서 목표로서 ‘양성평등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권리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핵심어는 문화권리, 즉 문화권이다. 유네스코도 지적했듯이, 문화적

36) www.unesco.org/culture-Issues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tergovernment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37)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외, “새정부 양성평등 문화정책 제안”, 2003. 2.p.1.

권리는 교육의 권리, 언어와 정보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과 종교적 자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고 문화적 창조의 결과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 존엄과 개발에 필수적인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³⁸⁾ 이는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치생산과 패러다임의 전환, 즉 사회적 삶을 정치·경제 중심에서 문화적 삶으로 전환하자는 적극적 제안³⁹⁾인 셈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생활의 모든 면과 공공연한 차별 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평등을 성취하려는 여성발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같은 문화적 권리의 개념 안에서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점에서 여성문화정책의 목표를 가리키는 핵심적 주제어라 할 만 하다.

2절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⁴⁰⁾

문화분야 여성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의 목표를 앞과 같이 설정하였을 때, 그렇다면 이를 정책으로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과 실행과제의 면면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술한 바의 사항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흐름이라든가 국제적 동향(제Ⅱ장), 지역여성의 문화활동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제Ⅲ장)으로부터의 정책적 함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말하자면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여성정책과 문화정책 그리고 국제적 논의 등의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과 문화에 대한 현안들 및 정책적 시사점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될 수

38) Danielle Cliche, Ritva Mitchell, Andreas Joh. Wiesand(1998), "Preparatory Paper", 5.2:Cultural rights and Women's rights.

39) 최준영, 앞의 글, P. 1.

40)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한 논의결과에 기반한 것이며, 특히 제시된 7개 방향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와 세부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연구진과 전문가 참가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화하였음.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음.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박현경(서울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손경년(부천문화재단 정책실장), 양현미(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옥덕(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장)

있을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가 제시한 여성과 문화정책에 관한 5대 원칙과, 문화민주주의/문화권/문화적 공공성 등 문화정책의 기본가치, 참여/자율/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원리와의 상호 관계성 하에서 문화정책 및 여성정책간의 접점 여지 등을 검토해본 것이 아래의 <표 4>다. 이는 유네스코의 5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제 요소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것으로,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이란 결국 이같은 근거 속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검토틀

유네스코의 5대 원칙 ⁴¹⁾	문화정책의 기본가치 ⁴²⁾	참여정부의 3대 국정원리	정책방향	
			문화정책 ⁴³⁾	여성정책 ⁴⁴⁾
평등	문화민주주의	참여	- 일상의 민주화 지향	- 여성권익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 각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다양성	문화권	자율, 분권	- 사회내 다양성 지향 - 문화적 내용의 다양성 지향	
인식			- 문화예술창작 및 수용활성화와 사회적 창의성 지향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투명성		참여		-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문화적 공공성		- 문화산업진흥과 문화복지향상	

41) 본문의 제II장 참조.

42) 강내희,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2003. 7)』 자료집, 문화연대, 2003.

43) 원용진(2003), “참여정부 문화정책과 개혁과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2003. 7)』자료집, 문화연대.

44) 여성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책임관(SGEO)의 임무”, 여성정책책임관 회의(2003. 5)자료.

표에서 본대로, 유네스코의 5대 원칙은 다른 요소들 속에 함축된 제 가치들을 담아내기에 비교적 무리가 없다. 여성정책까지도 광범위하게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없지 않지만, 이는 바로 여성문화정책의 존립근거를 대변해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미있다. 요컨대 포괄적인 여성정책만으로는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적 함의를 담아내기에는 무리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여성문화정책이 여성정책으로서 제시될 필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또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책영역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정책영역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야 정책방향 설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 역대 여성발전계획을 통해 본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범주라든가 유네스코가 주도한 국제적 동향 및 선진외국의 경향 등을 참고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주관하는 문화부의 정책영역 등을 견주어보는 가운데서⁴⁵⁾ 여성문화정책의 영역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문화정책의 영역(예시)

여성의 문화향수/평등한 생활문화/대중매체/여성의 문화인력/여성의 문화교육/문화예술 진흥/여성의 문화활동시설/여성의 문화적 유산/지역여성문화/여성의 문화교류/여성의 문화정보/문화행정/여성의 문화산업

이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과 문화정책에 관한 유네스코의 5대 기본 원칙과 여성문화정책의 대상으로서 제시가능한 영역들간의 관련성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표 5>는 이를 정리해본 것이다.

45) <부표 2>는 이같은 정책영역을 비교한 가운데서 여성문화정책영역을 예시화해 본 것임.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 ①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 조성
- ② 여성문화인적자원 개발·양성
- ③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수용활동 지원
- ④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협력 지원
- ⑤ 여성의 문화활동 자원화 및 생산적 활용 지원
- ⑥ 여성문화자산 발굴 및 발전적 계승 장려
- ⑦ 문화분야 여성정책 전담 정책전달체계 정비

<표 5> 여성문화정책방향의 관련성

유네스코	여성문화정책 방향	여성문화정책의 영역
[평 등]	■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 조성 ■ 여성문화인적자원 개발·양성	- 평등한 생활문화 - 대중매체 - 여성의 문화인력 - 여성의 문화교육
[다양성]	■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수용 활동 지원 ■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 협력 지원	- 문화예술 진흥 - 여성의 문화향수 - 여성의 문화활동시설 - 지역여성문화 - 여성의 문화교류
[인식]	■ 여성문화자산 발굴 및 발전적 계승 장려	- 여성의 문화적 유산 - 여성의 문화정보
[투명성]	■ 문화분야 여성정책전담 정책전달체계 정비	- 문화행정
[생산성]	■ 여성의 문화활동 자원화 및 생산적 활용지원	- 여성의 문화산업

이하에서는 각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정책과제와 세부적인 추진사업 등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의 조성

국가적 발전계획에 여성부문이 통합된 이래 각종의 제도적·법률적 측면에서 여성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적어도 가시적 형태의 진입장벽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진입은 하되, 여성의 고위직으로의 진출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ceiling)’ 현상으로 인해, 여성발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의 관행과 제도에 경사함으로써 빚어지는 이같은 우려는, 제도적·법률적 변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심리 및 의식 지체의 부정적 결과인 셈이다. 양성평등사회란 제도적 변화와 의식변화 사이의 간극이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의 변화는 곧 양성평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존중, 공감의 확산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정·학교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첫단계이자 궁극적인 도달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제2차 여성발전 기본계획의 목표인 ‘실질적 남녀평등’을 향한 정책기반 조성의 노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1-1. 제반 사회활동 조직 내 여성친화적 문화 형성

① 필요성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 조성은 사회활동을 위한 각종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있어 여성진출 확대로서 출발되어진다. 그러므로 우선 여성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이를 위해 우선 각 부문의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성에 우호적이지 않는 조직으로의 여성진출은 그만큼 지체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여성진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친여성적 조직문화 형성을 기대하길 어렵다. 조직내 의사결정의 지위에 있어 여성진출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설

사 비결정지위에 광범위한 여성집단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해당조직의 문화풍토를 여성친화적으로 변모시키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및 지자체내 공공·민간부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진사업

■ 양성평등지수 개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지수를 개발해 일반여성들이 체감하는 평등문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평등도시상·평등마을상 등을 제정하여 수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 양성평등도시만들기 사업 도입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단체·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양성평등도시 만들기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여성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계획, 국제선언의 내용을 지역차원으로 확산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함.

■ 중앙 및 지자체 내 공공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도 조사

중앙 및 지자체내 공공부문의 조직문화에 있어 여성친화 정도를 파악하고, 여성친화성이 낮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살펴 여성진출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효율화

국·공립연수원 및 각종의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동 교육의 효율화에 대한 세부방안이 필요함.

■ 시민활동조직, 사기업 등 민간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성 조사

다양한 형태의 시민활동 조직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조직문화에 있어 여성친화성 정도를 조사하고, 향후 보다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함.

■ ‘여성주간’ 사업관계자 워크숍

여성주간 사업은 중앙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 등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의 형태로 실시되는 상징적인 여성행사로 2003년 제8회에 이르고 있지만, 1회성 이벤트 위주의 사업이 주로 행해지는 데다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사업에서는 행사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향후 각 지자체의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행사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주간 사업관계자들의 합동 워크숍을 실시함.

1-2. 양성평등한 대중문화 환경 조성

① 필요성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성, 성불공정성 등은 그동안 문화분야 여성정책에 있어 주요한 관심사중 하나였다. 드라마나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성전형성 조사라든지 여성이미지의 검토,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바다.

향후 매체의 형태는 한층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매체 접근자,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층에 대한 성역할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위력적 전파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현실에서의 여성이미지를 재생산하거나 또는 왜곡할 수도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여성이미지 파급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적이나, 규제에 기본적인 정책으로는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대중문화를 생산해내는 현장으로부터 양성평등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므로써, 보다 전향적인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갈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의 균형된 이미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로서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관점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작가 및 제작자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함.

■ 방송·언론사의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방송·언론사 등 주류매체에 있어 양성평등적 조직문화 형성과 여성소비자의 의사반영을 위해 핵심부문에 대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함.

■ 뉴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뉴미디어가 조성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현상에 주목하고, 생산 및 소비 양자의 측면에서 양성평등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함.

■ 성차별적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공감 확산 사업

양성평등에 기반한 생활문화로부터 올바른 남녀평등의식을 기대할 수 있음. 여성부 출범 이후 전개해온 5대생활문화 개선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2. 여성문화인적 자원 개발·양성

문화활동 부문에서 여성의 인적 자원은 문화예술분야에만 한정지어 보아왔다. 그러나 문화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문화산업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의 문화활동 영역에서 교육받고 경력을 쌓아온 여성들에 대해 문화인적 자원화하려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더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IT, CT 부문에서 여성들의 진출 가능성이 활발해지고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인적자원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에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등의 평생 교육기관 등에 여성을 문화소비자로서가 아닌 문화생산자로서 시각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과 전문문화예술 영역의 여성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문화인력을 자원화할 시점에 와있다.

2-1. 여성문화인력의 저변 확대

① 필요성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확대,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확산 등에 힘입어 여성들의 문화활동 참여율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문화소비자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유사한 강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적 행위를 통한 문화감수성 증진에 바탕을 둔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삶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지역의 여성문화회관을 확산하고 여성단체의 문화소모임 활성화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거니와, 이를 통해 여성문화인력의 저변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② 추진사업

■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실무자 교육**
기존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문화예술영역 분류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접근으로 여성들의 문화적 감성을 촉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강화**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문화공간에서 교육담당 실무자 뿐 아니라 교육수강생들도 스스로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여성문화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 기금 지원**
여성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은 미약한 편임. 문화활동의 중요성 강조로 기금 지원 배분을 늘리도록 함.

■ **전국의 여성문화활동 현황파악과 활성화 지원방안 조사연구**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여성문화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자체별로도 현황조사 연구를 독려하도록 함.

■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내 문화프로그램 확대**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문화소외층으로 남고 있는 취업주부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및 활동의 기회제공이 요망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수 지원**
직장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여성노인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함.

2-2. 여성문화자원봉사자 제도의 활성화

① 필요성

잠재적인 여성문화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나열식의 문화강좌를 지양하고 지역간 사회문화기관들의 공조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택 학습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회적인 강좌수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후속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적 소양의 전문화를 기하고, 이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봉사활동이 독려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문화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각종 문화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40-50대 주부중심의 문화봉사자 지원**
일회적인 강좌수강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해줌으로써 여성자신들의 문화활동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학력 취업여성들의 조기은퇴에 따른 자기계발 및 문화봉사 적극 권장**
고학력 취업여성들의 조기은퇴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문화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가능성을 열어놓음.
- **여성문화봉사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문화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자원봉사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봉사영역을 다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여성문화예술활동 동아리의 지역사회 문화봉사 활동 권장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문화예술 봉사단 또는 동아리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함.

2-3. 문화예술계 전문 여성인력의 실태 파악

① 필요성

기존의 전문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화예술전문직종의 여성인력 양성지원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예술계의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향후의 양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문화예술영역의 성별 통계작업 실시

여성들의 문화인력을 자원화하고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영역의 성별 통계작업을 정확히 하고 문화영역이 다원화함에 따라 기존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분류틀에서 제외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도 포함할 수 있는 틀을 만들.

■ 전통여성문화 종사자에 대한 재조명과 지원

21세기 세계화와 국제화의 자원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높아지고 있음. 전통문화종사자는 움직이는 문화산업자원이고, 관광자원임. 다양한 전통여성문화 종사자에 대한 재조명과 연수사업 및 후계자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4. 문화공간 종사자 및 공연기획자, 문화예술경영직, 문화행정 직의 여성 인력 양성 및 지원

① 필요성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문화수요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문화기획 및 경영전문직종과 문화산업직종에 여성인력 양성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의 수요증대로 문화기획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많은 여성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문화복지 마인드 제고와 함께 문화프로그램 기획능력 확산을 위한 연수 기회제공도 요청되고 있다.

② 추진사업

■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경영직의 여성참여 기회 확대

남성중심의 문화기획 및 예술경영직에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봉사자 또는 문화동아리 참여자들에게 문화기획자 과정 교육과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종화하도록 함.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생활문화영역에서 문화기획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사례로써 제시하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도록 사례발굴과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여성교육기관에 제공함.

■ 사회복지기관의 여성사회복지실무자에 대한 문화기획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사회복지기관에도 이미 문화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문화단체 실무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문화연수를 희망하는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아울러 문화마인드 교육과 문화기획력 증진을 위한 문화관 광부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함.

2-5. 새로운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영역의 여성전문인력 양성

① 필요성

최근 IT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문화환경의 변화는 문화산업 인력의 창출을 예고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수요의 증가로 각종 문화공간의 종사자와 기획자, 문화시설경영 전문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진흥영역에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이같은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을 위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문화산업의 확산으로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하위직에 머물게 됨에 따라 콘텐츠 부문에서 여성의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함. 문화산업 및 콘텐츠관련 교육을 문화회관과 인력개발센터에 늘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산업관련 직종 개발 확대 실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 프로그램 지원함.

3.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수용활동 지원

여성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이 문화 창조와 수용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는 사실 모든 국

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조자로서 여성은 사회 속에서 예술가라고 하는 전문직으로 대표되지만, 문화적 표현이 예술가로서의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문화적 표현은 문화 창조의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부터 생활문화의 기획자로서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로서 여성은 성적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문화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1.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① 필요성

예술가로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예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과반수를 넘는 65%대에 이르고 있으나,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창조성이 남성에 비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사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로서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나이에 가정에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일단 현장에서 물러난 여성 예술가가 다시 예술계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이러한 여성예술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문화적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여성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추진사업

■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 할당제 도입

예술가에 대한 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 예술가에 대해 일정한 지원 비율을 할당하여 목표제로 운영

■ 국공립 공연장에서 여성 예술가의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공연예술 분야 여성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연장에서 여성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발표기회를 확대

■ 국공립 미술관에서 여성 미술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기회 확대

시각예술 분야 여성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수집시 일정 비율을 여성 미술가 작품 구입에 할애하도록 하며 이들의 전시 기회 보장

■ 국공립 도서관에서 여성 문인의 도서 구입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문학 분야 여성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시 여성 문인의 창작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여성문학을 주제로 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 여성 예술가의 발굴·지원을 위한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

여성 예술가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정보나 연수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점 마련

■ 여성 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및 여성예술에 대한 연구, 평론활동 지원

여성 예술인의 예술적 성취를 수집하고 이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여성 예술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평론활동 지원

■ 각종 여성예술제 지원

여성영화제, 여성연극제, 여성음악제 등 여성 예술가들의 창작 및 발표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되는 각종 여성예술제에 대한 공공 지원 확대

■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여성 이해와 창작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여성예술제 및 여성영화제 등에 대한 국제교류 지원

3-2.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대

① 필요성

여성의 문화활동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가정생활에 매여 있어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대는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수반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실질적인 주 관람객층인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추진사업

■ 주거지역 내에 소규모 여성문화공간 조성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 휴식공간이 연결된 소규모 여성문화공간 조성

■ 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변별력이 없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운영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이용자의 편의 제고

■ 문화시설 내 여성편의시설(화장실, 탁아소 등) 확충

문화시설 이용자의 8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화장실 수가 동수로 구성되어 여성 관람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을 개선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관람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시설 내에 탁아소를 설치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주말 가족 프로그램 확충

주5일 근무제로 주말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바, 생활문화의 기회자로서 여성이 주축이 되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 문화 프로그램 확충 필요

3-3.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실시

① 필요성

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문화는 매우 효과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과 체험을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해낸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또한 여성들 스스로 표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억눌리거나 파편화되었던 자신의 인간적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여성문화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성문화단체가 주관하는 여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참가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

■ 문화예술 분야 여성 동호회 활동 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여성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향수하고 아마추어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동호회 활동 지원

4.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협력 지원

참여, 분권, 자율이 3대 국정가치로 제시됨에 따라 지방분권이 주요담론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은 지역문화의 창조자, 향수자이자 생산자, 유통자, 행정가 등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담당자이며 주체자이다. 특히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여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현실에서, 지역여성의 문화활동 역시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여성의 정서적 요구충족과 문화활동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 또한 지역여성의 발전의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주체로서 지역여성을 건인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교류협력 속에서 지역적 및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여성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1. 지역여성 소그룹 활동의 종류 및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및 시설조사

① 필요성

적은 예산과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휴시설 등의 활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여성들의 소그룹 활동의 종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 활동과 활용가능한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찾아봄으로써 지역문화와 여성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함께 움직이는 구성원으

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

② 추진사업

- 지역여성 소그룹 활동의 종류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여성 문화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및 시설조사

4-2. 지역사회에서의 문화활동기회 제공방안 모색

① 필요성

여성의 문화활동기회에 대해 양적팽창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질적 성장을 차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활동영역에서의 지역여성들의 참여도는 아직 제한된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기회를 제공하여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② 추진사업

- **지자체의 조례,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 제도적측면에서의 불평등조항 개선**
중앙에서의 여성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과 맞물려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조례,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에서 보여지는 불평등 조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여성학적 인식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제공과 여성문화예술동아리 육성**
 -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기회 제공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 경험이 사회활동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입문단계를 벗어나 고급단계로 들어서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스스로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들이 시민사회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 : 도슨트(Docent; 전시해설봉사자), 문화해설가,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 등.
- 공공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지역여성들의 전문교육 실시 : 연수, 세미나, 포럼들을 통한 조직운영, 리더십 교육, 문화 코디네이터 등.
- 전문교육-심화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지역의 강사로서 충원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 소외계층 지역여성에게 ‘찾아가는 문화강좌’ 개설.

■ 여성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존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 재정지원 : 지자체, 구 등에서의 사업비, 기자재 등의 지원.
- 공간지원 :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여성센터 등 공공문화시설의 제공.
- 인적자원지원 : 여성문화인력은행 구축, 강사정보제공 및 지원 등.

4-3. 지역여성 단체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방안 모색

① 필요성

지역여성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바탕하여 지역사회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지역간 상호 교류협력활동은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문화인력 및 활동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추진사업

- 여성문화 활동단체 및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센터 확보 :

예를 들어 서울의 여성플라자나 각 지자체의 여성회관 혹은 여성센터 등.

-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 ‘대안문화공간’을 통해 아방가르드,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문화시장에서 취약한 여성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을 유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및 통합 장 마련 :

여성정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없앴. 지역정보의 공유 및 문화예술 아이디어의 교류.

- 인접지역간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의 공동 기획 :

지역간 배타성을 지양하고 축제를 통한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여성 문화활동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및 정기적인 여성문화포럼 운영

- 지역여성단체간 네트워크를 위한 가칭 ‘여성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5. 여성의 문화활동 자원화 및 생산적 활용 지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특히 문화 분야의 여성활동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현재 정착단계에 도달해있는 여성영화제의 성과물들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라고 하겠다. 한편 전국적 단위의 집단적 여성 문화

활동만이 아니라 각 지역차원, 개인적 차원의 여성 문화활동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활동의 결과물들은 아직까지 체계적인 유통망의 미비로 인하여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여성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문화활동이 한 단계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문화활동들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문화활동이 재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이들 여성 문화활동을 선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게 될 때 여성 문화활동은 사회적 자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1. 각종 여성문화활동의 자료화 및 체계적 관리

① 필요성

문화활동은 제작당시에만 유통, 소비되고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아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제작물의 기록화 작업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문화활동의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과거 우수한 여러 생산물들도 사라져서 찾을 수 없고 기억에서조차 지워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화활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 활용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인프라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상물의 경우는 보관도 쉽고 시공간을 넘어 유통이 쉽기 때문에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보관과 유통은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여성영화제를 통해 형성된 많은 영상자료들도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제 기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곳에 보급 유통하고 후대에까지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

요하다. 이 기구는 여성 문화활동의 기록화를 촉진할 것이고,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된 자료들은 이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추진사업

■ 장르별 여성문화예술활동의 기록 작업팀 운영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등 각종 여성 문화예술활동을 장르별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자료화하는 작업 팀을 구성 운영함. 이들은 직접 현장을 취재하여 기록화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지방의 개인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여성 문화활동 자료실 설치(일반 자료실 및 영상문화자료실:영상아카이브 설치)

기록 작업팀에 의해 생성 수집된 자료를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화예술 종사자 및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실을 설립함. 자료의 성격상 영상문화자료실(영상아카이브)을 일반 자료실과 구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5-2. 여성문화생산물의 유통지원

① 필요성

해마다 많은 여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유통구조가 제한되어 그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 네트워크나 유통구조가 미비하여 자신의 문화생산물을 사장시키는 것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지역이나 단체, 개인 등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그 향유에는 절대적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생성되고 있는 여성 문화생산물 등록제를 도입하여 여성문화자원은행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문화행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예술가, 창작인, 창작물의 현황과 추세 파악을 가능케 하여 그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은행이 예금을 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하듯, 문화활동을 등록하게 하고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정보와 향유기회를, 생산자에게는 광범위한 소비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21세기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추진사업

■ 여성문화생산물 자원은행(Resource-Bank) 설치 및 활성화작업

여성 문화생산물들은 그 형태나 내용이 아주 다양하여 일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들 다양한 생산물들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행(리소스뱅크)의 설치가 요구됨. 자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간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여성문화활동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주선사업 실시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이를 위해 생산자와 생산물, 수요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생산물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함.

5-3. 여성 문화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① 필요성

여성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경제적 기반의 자립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문화활동을 산업화하는 여성 문화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생산물이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장려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현저해지고 여성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여성 개개인의 어려운 분투의 결과였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각종 제약은 아직도 많은 부분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문화 생산활동은 막대한 정보와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그 같은 자원의 활용에서 크게 제약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을 가지기가 힘들다. 따라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여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이 분야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단의 용자 지원책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추진사업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여성 창업 지원

여성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진출이 활발해져야 함. 여성들에게 문화산업에 관한 최신 고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 분야 여성 창업을 유도함.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여성기업인에 대한 용자 지원

상대적으로 자본이 열악한 여성들이 문화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분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용자를 알선하고 지원함.

5-4. 여성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사업의 집중 육성

① 필요성

한국의 여성문화활동의 수준은 이미 매우 선진적이며 풍부한 가능성을 지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 문화활동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도전에 의존하는 바가 클 것이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앞장서서 이끄는 사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진적 복합문화공간이다. 국제적 유통, 선진적 유통을 리드하는 공간으로서 중앙(서울)에 여성복합문화공간의 설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여성문화의 생산과 소비유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진사업

■ 아시아 및 국내의 여성문화를 리드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 운영(지역의 여성문화센터와 차별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여성문화활동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건에 대한 종합적 이해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전문가 워크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성 리더의 활동의 장으로서 여성복합문화공간 설립이 필요함. 이 기구는 현존하는 각 지역의 여성문화센터와는 그 성격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6. 여성문화자산 발굴 및 발전적 계승 장려

지방화시대에 여성의 중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지역여성의 뿌리를 찾고 지역이 낳은 역사적 여성인물들에 대한 재인식과 그들이 남긴 유적·유물을 통해 궁지와 문화적 유산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주역으로서의 여성역할이란 무엇보다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려는 주인의식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

하는 지역문화자원은 고부가가치·창정산업의 대표주자로서 국가적 관심이 높은 문화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기도 하다. 각 지역차원에서 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내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통한 지역의 여성문화유산이 단순히 보호받기에 그치는 문화현상으로 남아있어서는, 여성발전 나아가 새로운 문화창출을 유도하는 의미있는 자산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발굴된 여성문화유산의 자원적·생산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여성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아가고 있다.

6-1.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활용 증진 지원

① 필요성

여성부에서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사업 가운데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활용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업은 겨우 <여성사 전시관> 부분이다. 그나마 한정된 공간의 평면적인 접근일 뿐으로, 70만년전 구석기 이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겨우 현대와 가까운 조선시대 여성사 일부를 전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의 여성의 자취를 알려주는 여성문화유산의 발굴을 적극화하는 동시에, 동 유산들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같은 노력이 보다 다방면화하고 구체화, 혹은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② 추진사업

- 지역 단위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사업 지원 : 각 시·도의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정책사업에 여성관련 역사문화유적의 보존과 탐구를 지원하는 사업 포함

- 전통 여성공예산업 클러스터(Cluster;연관산업이 집중적으로 모인 거점지역) 형성 지원으로 계승발전 및 관광자원화
- 각 박물관의 여성사부문 전문가 배치
- 여성사 전시관 사업내용 보완
- 여성역사(문화)박물관 설립지원

6-2. 역사 속의 한국여성인물 제대로 알기

① 필요성

역사 속에서 항상 여성들의 삶은 소외되어 왔다. 그나마 새롭게 여성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여성은 다시 또 소외되고 있다. 서양에서 출판되는 세계속의 여성인물 100명 중에 동양여성이 서너명 거론되나 한국여성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역사 속 여성인물들을 발굴하여 국내외적으로 역사적 인물로서 부각하는 연구와 작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② 추진사업

- 역사 속의 다양한 여성인물 모델 발굴 연구를 위한 단체 및 연구자 지원
: 여성역할모델이 현모양처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 실정은 21세기 여성역할모델로는 제한적이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사회적 주체로 일익을 담당해 온 다양한 역할에 대한 규명이 요구됨.
- 지역 단위 여성인물상 발굴 및 조형 지원: 현대여성상으로서 현모양처 외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여성역할모델의 발굴 홍보는 일반인의 여성상 제고의 기회 및 여성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영향력이 큼.
- 다양한 여성상 개발 공모시장
- 교과서, 매스컴 모니터 및 새로운 교과서 영상물 제작 등 지원

- **국사 새롭게 쓰기**: 새로운 국사쓰기가 인정되는 시기를 맞아, 여성과 관련한 역사사업 지원이 필요
-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주체가 된 역사사업 지원** : 구체적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실행
- **여성인물 애니메이션사업 지원**: 대중화 홍보화 상업화를 위한 사업 지원
-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에 여성 선정 확대**

6-3. 여성역사문화의 재정립

① 필요성

그동안 우리문화 속에서 여성역사부분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다. 역사가 깊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여성역사문화는 큰 자부심이며 자아존중감의 원천이며 내외국인관광의 새로운 큰 자원이다. 따라서 역사 속 주변인물로서의 여성에 머물지 않고, 역사창조·주체로서의 ‘여성’을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획과 사업을 통해 새롭게 여성역사문화를 재정립해나가갈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문화관광부, 교육부 내 여성역사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 **여성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양성평등한 역사관광문화 정립**

7. 문화분야 여성정책 전담 정책전달체계 정비

현재 여성부에는 여성정책실 내에 정책1, 정책 2로만 나뉘어 있을 뿐, 여성정

책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보육, 노동 등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포괄되기 어려운 측면에서 문화부분도 전문화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로 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성부에서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여성디지털콘텐츠공모전>, <정보화기반구축>, <남녀평등의식확산>, <여성 신직업 Festival>,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살림문화, 명절문화, 육아교육문화,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 <여성사 전시관> 부분사업은 특히 여성‘문화’와 관련시켜 보다 구체화, 혹은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이런 사업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7-1. 여성부 내 문화담당부서 설치 : 문화기획분과/ 기획사업단/ 전담기획팀 중 택일 설치

① 필요성

여성부내에 여성정책실, 차별개선국, 권익증진국, 대외협력국의 4국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체제에 여성문화기획분과를 따로 설치해서 국을 하나 더 만들거나, 혹은 여성정책실 내에 ‘문화부문 정책’담당을 따로 구분하여 이를 기획사업단으로 해서 여성문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여성부 조직에서 여성문화 관련 분과를 설치하기에 어려운 경우, 1차적 기본준비단계로서 단기적으로 여성문화 전담기획팀을 T/F(Task Force)식으로 구성하여 여성문화관련 업무를 분리,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추진사업

- 기존의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하여 구체적이고 통일된 여성

문화 정책 기본계획안을 구성.

- 새로운 여성문화를 기획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안 기획
- 여성문화 부분에서의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고려
- 양성평등문화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본적인 할당제, 혹은 여성관련 우선지원정책 고려.

7-2. 문화부 내 여성담당부서 설치 : 여성문화기획 전담국/ 여성정책 담당관 중 택일 설치

① 필요성

문화관련 여성정책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여성영화제>, <전국어머니 종합생활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 <문화관광부장관기 여성축구대회>, <여성스포츠국제교류>, <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에서 여성과 관련된 여성정책은 청소년국, 체육국, 예술국에서 나누어 개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셈이다. 열거한 상황을 미루어 보면, 여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여성문화나 양성평등문화와 관계있는 내용이기 보다는 남성들이 하는 문화에서 ‘여성’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성이 들어가 있으면 여성문화로 구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 내에서 여성문화가 무엇이며, 여성문화를 위하여 기획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그것을 맡아야 한다.

국민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성매매 관련 문제, 청소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문화문제와 같은 프로그램은 여성문화 전담기획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여 법률부분이나 여성부, 검찰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임에도, 현재 그저 ‘실태조사’에 그치는 서류작성용으로 그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행정혁신위원회’가 운영되어 신규로 T/F팀이 18개 신설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문화’T/F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 부분은 기획총괄담당관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TF로 설치되어 있는 부서가 장기적으로 정규화되어 여성문화 관련 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추진사업

- 문화관광부 내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 문화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머물지 않고, 문화생산, 문화활동가로서 ‘여성’을 고려하여 그런 여성의 활동을 고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활동가 중 여성중점지원사업 기획
- 양성평등한 관광문화정책 수립 : 관광부분에서의 성매매와 관련된 실태조사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특히 관련 여성NGO와의 긴밀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양성평등 관광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함.
- 제한된 범위의 문화의 개념을 넘어서서, 양성평등문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사업추진

7-3.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내 여성참여 제고 : 다양한 문화관련 위원회 내 할당제를 통한 여성 참여 증진

① 필요성

양성평등, 더 나아가 남녀 공히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문화를 위하여 현재 각종 분야별로 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의 목소리,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반

영, 실행에 옮겨지는데 한계가 있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부처의 기획안을 토대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정책실천에서 실효성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② 추진사업

■ 문화예술영역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확대

문화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문화예술 영역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확대

■ 다양한 역사문화위원회 내 여성 참여 증진

현재 역사문화관련 위원회(문화재위원회, 교과서 편찬관련회의 포함)에 기본적인 성별구성비율에서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여성역사의 개발과 평가 정책제안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여성참여를 더욱 강화

■ 기타 각종 문화관련위원회에 여성할당제 채택

■ 각 위원회별 소속 여성들 간의 전체 네트워크 형성 지원

여성문화 관련분야에 대해 관계 위원회가 연계하여 대처,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



결론 및 제언

1절 결론

109

2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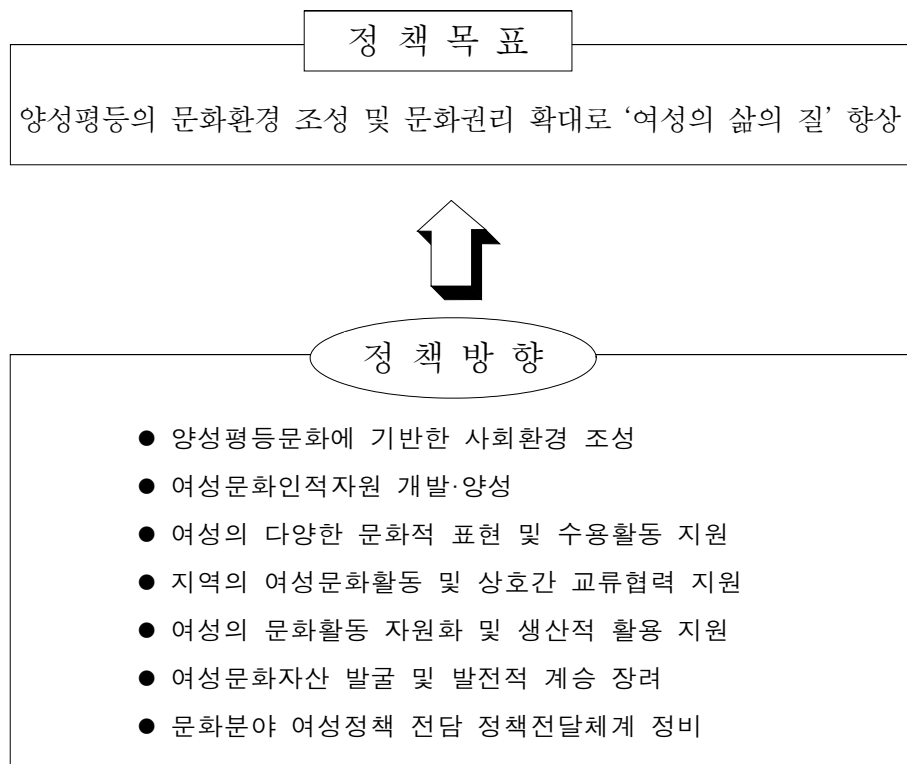
115



1절 결론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대내외적 다양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여성문화정책이 나름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구체화된 정책과 제를 통해 여성발전계획으로서 바르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말하자면 여성문화정책의 체계를 설정해 보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본 연구의 결론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성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성문화정책의 과제 및 세부추진사업

이하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책과제와 세부적으로 추진될 만한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정책과제	추진사업
① 양성평등 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의 조성	①-1. 제반사회활동 조직 내 여성친화적 문화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지수 개발 ■ 양성평등도시만들기 사업 도입 ■ 중앙 및 지자체내 공공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도 조사 ■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효율화 ■ 시민활동조직, 사기업 등 민간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성 조사 ■ '여성주간'사업관계자 워크숍
	①-2. 양성평등한 대중문화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위원회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 방송·언론사의 여성할당제 도입장려 ■ 뉴미디어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성차별적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 공감 확산 사업
② 여성문화 인적자원 개발·양성	②-1. 여성문화인력의 저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교육 ■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강화 ■ 여성문화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 기금 지원 ■ 전국의 여성문화활동 현황파악과 활성화 지원방안 조사연구 ■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내 문화프로그램 확대 ■ 여성노동자,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수 지원

(계속)

	②-2. 여성문화자원봉사자 제도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화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40-50대 주부 중심의 문화봉사자 지원 ▪ 고학력 취업여성들의 조기은퇴에 따른 자기계발 및 문화봉사 적극 권장 ▪ 여성문화봉사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 여성문화예술활동 동아리의 지역사회 문화봉사 활동 권장
	②-3. 문화예술계 전문여성인력의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영역의 성별 통계작업 실시 ▪ 전통여성문화 종사자 재조명과 지원
	②-4. 문화공간 종사자 및 공연기획자, 문화예술경영직, 문화행정직의 여성인력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경영직의 여성 참여 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 사회복지기관의 여성사회복지실무자에 대한 문화기획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②-5. 새로운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영역의 여성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및 콘텐츠 진흥을 위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기관에 문화산업관련 직종 개발 확대 실시
③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및 수용활동 지원	③-1.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할당제 도입 ▪ 국공립 공연장에서 여성예술가의 작품 발표기회 확대 ▪ 국공립미술관에서 여성미술가의 작품 구입 및 전시기회 확대 ▪ 국공립도서관에서 여성문인의 도서 구입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 여성예술가의 발굴·지원을 위한 여성복합문화센터 건립 ▪ 여성예술인 아카이브 구축 및 여성 예술에 대한 연구·평론활동 지원 ▪ 각종 여성예술제 지원 ▪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계속)

	③-2. 여성의 문화향수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내에 소규모 여성문화공간 조성 ▪ 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 문화시설 내 여성편의시설 확충 ▪ 자녀와 함께 하는 다양한 주말가족 프로그램 확충
	③-3.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여성 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분야 여성동호회 활동지원
	④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성 소그룹활동의 종류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여성 문화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및 시설조사
④ 지역의 여성문화활동 및 상호간 교류협력 지원	④-2. 지역사회에서의 문화활동기회 제공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조례,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조항 개선 ▪ 여성학적 인식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제공과 여성문화예술동아리 육성 ▪ 여성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존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④-3. 지역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화 활동단체 및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센터 확보 ▪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 ‘대안문화공간’을 통해 아방가르드,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문화시장에서 취약한 여성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을 유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및 통합 장 마련 ▪ 인접지역간 페스티벌이나 이벤트의 공동 기획 ▪ 지역여성 문화활동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및 정기적인 여성문화포럼 운영 ▪ 지역여성단체간 네트워크를 위한 가칭 ‘여성문화예술지원센터’ 조성.

(계속)

⑤ 여성의 문화활동 자원화 및 생산적 활용 지원	⑤-1. 각종 여성문화활동의 자료화 및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별 여성문화예술활동의 기록작업 팀 운영 여성문화활동 자료실 설치
	⑤-2. 여성문화생산물의 유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문화생산물 자원은행(resource bank) 설치 및 활성화 작업 여성문화활동 생산자와 수용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주선사업
	⑤-3. 여성문화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분야의 여성창업 지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분야 여성기업인에 대한 융자 지원
	⑤-4. 여성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사업의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및 국내의 여성문화를 리드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 운영
⑥ 여성문화 자산 발굴 및 발전적 계승 장려	⑥-1.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활용 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단위 여성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사업 지원 전통여성공예 클러스터(cluster) 형성 지원으로 계승발전 및 관광자원화 각 박물관의 여성사부문 전문가배치 여성사전시관 사업내용 보완 여성역사(문화)박물관 설립지원
	⑥-2. 역사 속의 한국여성인물 제대로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속의 다양한 여성인물 모델 발굴 연구를 위한 단체 및 연구자 지원 지역단위 여성인물상 발굴 및 조형 지원 다양한 여성상 개발 공모시상 교과서, 메스컴 모니터 및 새로운 교과서 영상물 제작 등 지원 국사 새롭게 쓰기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주체가 된 역사 사업 지원 여성인물 애니메이션사업 지원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에 여성 선정 확대
	⑥-3. 여성역사문화의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부, 교육부 내 여성역사문화 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여성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 양성평등한 역사관광문화 정립

(계속)

⑦ 문화분야 여성정책 전담 정책전달체 계 정비	⑦-1. 여성부내 문화담당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하여 구체적이고 통일된 여성 문화 정책 기본계획안을 구성 ■ 새로운 여성문화를 기획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안 기획 ■ 여성문화부분에서의 여성인적자원 활용 고려 ■ 기본적인 할당제, 혹은 여성관련 우선지원정책 고려
	⑦-2. 문화부내 여성담당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내 여성문화관련 사업 점검 및 재평가 ■ 문화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머물지 않고, 문화생산, 문화활동가로서 '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활동가 중 여성중점지원사업 기획 ■ 양성평등한 관광문화정책 수립 ■ 제한된 범위의 문화의 개념을 넘어 서서, 양성평등문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사업추진
	⑦-3.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내 여성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영역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확대 건의 ■ 다양한 역사문화위원회 내 여성 참여 증진 ■ 기타 각종 문화관련위원회에 여성할당제 채택 ■ 각 위원회별 소속 여성들 간의 전체 네트워크 형성 지원

2절 제언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앞으로 여성문화정책이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적 계획으로서나 또는 각급 지자체 차원에서 도모되는 여성발전계획에서 바르게 자리매김되고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제언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성문화정책에 관련되는 주요 주체를 염두에 두어, 여성부와 문화부 그리고 여성NGOs 등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부에 대해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있어 문화분야 과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성과 발전에 있어 ‘문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갖출 필요가 절실하다.

여성부의 존재이유는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 : 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반”이라는 현재 여성부의 정책목표는 이같은 존재이유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자 설치된 것이 바로 여성부라 보아 무방하다. 이런 점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부의 비전을 실제 정책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해나갈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의미있는 계획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살펴본대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있어 문화분야 과제라야 이전의 여성발전 종합계획에 제시되었던 수준 또는 내용에서 크게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의 배경에는 물론 가시적 성과를

우선 잣대로 하는 정책의 논리 또는 정책적 효율성 등이 크게 작용하리라 짐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정책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정치든 경제든 또는 복지든 어느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의 문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해결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흔히들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의 세기’ 또는 ‘여성의 세기’라 한다. 차제에 여성부는 ‘여성과 문화 그리고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상호간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여성정책으로서 수용하는 데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부터 ‘문화’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올바른 대안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이같은 여성문화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일이지만, 현재도 문화분야 여성정책 중 특히 문화주체로서의 여성활동과 관련한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주관부처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화관광부가 그러한 일에 성의를 보이리란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문화분야의 시행성과에 대한 그간의 평가가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문화관광부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성부내에 이러한 사안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편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내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토록 협의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2. 문화관광부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을 두어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정책으로서 양성평등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체점검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요망된다.

여성문화정책에 있어 문화관광부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정책으로 문화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현실적으로 여성문화정책의 주요 영역 및 과제, 추진사업 등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참여정부의 3대 국정가치를 문화행정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문화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 여성문화T/F를 구성함으로써, 일견 여성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기관 여성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을 증설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을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예로 제시⁴⁶⁾하는 모습에서 모든 정책영역에서의 성주류화를 정책추진전략으로 설정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부가 현 시점에서 여성문화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역시 여성정책담당관의 설치다. 특히 최근 국방부라든가 과학기술처 등의 부처에서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관광부가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록 2003년 이루어진 부처내 일부 조직개편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설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각국 문화정책에의 젠더관점 반영 시, 권한부여(empowerment)·책임성(accountability)·통합성(integration) 등 3대 원칙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국제적 동향⁴⁷⁾에도 부합하는 문화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여성 NGOs에 대해서

생활 속의 여성과제 발굴에 근접해 있는 여성NGOs의 여성문화정책에 대

46)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관광부 소식, 문화관광부 브리핑, 브리핑지 제24호('03. 11.7).

47) UNESCO(2000), "Gender Equality And Equity", A summary review of UNESCO's accomplishments since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Unit for the Promotion of the Status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p.7.

한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실제 생활문화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로부터 새로운 문화적 대안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의 분야에서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 최근의 화두는 단연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이는 정부 및 비정부(민간부문 포함) 측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간의 대화와 협의, 참여(engagement)를 통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조직으로서의 시민의 참여를 구도로 하는 것⁴⁸⁾이다. 이 점을 고려하고 보면, 여성문화정책에 있어 여성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비단 여성문화활동단체들의 역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성문화정책이 여성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여성NGOs 전반의 협력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 있어 그동안 여성NGOs들이 차지해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여성NGOs들의 여성정책 요구에서도 역시 문화분야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있음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생활상의 여성과제 발굴에 가장 근접해있는 여성NGOs의 위치는 우리의 생활문화를 양성평등의 문화로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더없이 유리하여 이른바 양성평등한 사회문화환경 조성의 책임자라고도 할 만하다.

따라서 여성발전에 있어 문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앞으로 여성NGOs에서도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실제 생활문화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로부터 새로운 문화적 대안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호주제 철폐를 위한 그간의 움직임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다. 호주제 철폐야말로 필시 양성평등의 문화형성을 위한 일대 전환기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4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평등, 발전, 평화”,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3. 4, p. 199.

4. 여성문화정책연구에 대해서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며, 여성발전전략으로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인 여성문화정책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성문화정책이 여성정책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책 연구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책연구기관인 본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소홀하였던 측면이 없지 않다. 문화정책에도 실질적인 관심을 돌려 전체 정부재정의 1% 돌파가 자축되기도 한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이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시기와도 일치하는 시기인데, 이 무렵 본원에서 소위 문화분야 정책연구로서 수행되었던 실적은 일부 주제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미약한 지경이다.⁴⁹⁾ 이른바 IMF관리체제에 들어가야만 했던 당시 정황을 감안하고 보면, 여성정책 연구에서 역시 문화관련 연구가 후순위일 수 밖에 없었을 사정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시대적 상황상 여성부문에서도 눈에 보이는 보다 급박하게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한 우선적 검토가 요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라든가 또는 주5일 근무시대 등, 이른바 문화변동을 가져올 만한 중대한 사회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본원에서도 차후 여성문화정책에 관련되는 연구를 보다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당위론적 논리보다는 치밀한 정책적 논거에 입각한 문화관련의 각종 대안 제시를 통해, 여성문화정책이 여성발전에 있어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정책임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49)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동안 본원에서 수행된 정책연구사업을 동 계획상의 20대 정책과제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주요범주인 '의식'관련의 사업은 '정책과제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에 포함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음. 이는 대부분 남녀평등의식의 실태라든가 교육 및 검사도구 개발 등과 관련된 것임. 이에 비해 '정책과제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연결되는 정책연구실적은 고작 3건에 불과한 정도임(양애경·이춘아, 『한국여성개발원 20년 1983-2003』, 한국여성개발원, 2003, p. 155 참조).

참고문헌

- 강내희(2003), “경제적 이성비판과 사회발전: 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한겨레신문사.
- _____(200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의 전제와 방향”,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평가 토론회』 자료집, (사)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 김문환·양건열(1998), 『한국문화정책연구의 동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숙희(2002), “여성문화란 무엇인가?”, 『여성과 문화』,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김양희·이춘아·김이선(1994), 『여성의 문화활동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인·조연숙(2002),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숙(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 한국여성학회 제19차 추계학술대회.
- 대통령 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백서』.
- _____(1999), 『여성백서』.
- _____(2000), 『여성백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2002),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국민의 정부’ 문화적 평가와 정책대안』.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문화관광부 소식, 문화관광부 브리핑, 브리핑지 제24호 (2003. 11.7).
- 보건사회부(198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보건사회부문 계획 1987-1991』.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외(2003), “새정부 양성평등문화정책 제안”.
-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2003), 『미래예측과 정책형성』.
- 양애경·이춘아(2003), 『한국여성개발원 20년 1983-2003』, 한국여성개발원.
- 양현미(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여성부(2001), 『여성백서』.
- _____(2002), 『여성백서』.
- _____(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
- _____(2003), “참여정부의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 여성정책책임관 회의자료.
- 원용진(2003), “‘참여정부’ 문화정책과 개혁과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 과제 및 대안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
- 정무장관(제2)실(1995), 『여성백서』.
- _____(1996), 『여성백서』.
- _____(1997), 『여성백서』.
- _____(199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여성개발부문 계획 1992-1996』.
- _____(1997),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정홍익(1997), “문화정책연구의 영역과 접근방법“,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전망』, 문화정책개발원.
- 최준영,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문화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문화포커스, 문화연대, 2003.7.30.
- 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백서』.
- _____(1991), 『여성백서』.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정책의 새로운 비전:평등, 발전, 평화“,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황정미(2003), “여성정책과 여성문화-대안적 문화와 정책의 가능성“, 『한국여성학회 제1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www.unesco.org/culture/laws/stockholm/html_eng/actionpl1.shtml,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Action Plan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 www.unesco.org/culture/laws/stockholm/html_eng/index_en.shtml,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The Power of Culture.

www.unesco.org/culture/policies/ocd/html_eng/chapter3.shtml, Our Creative Diversity, chapter 3. Creativity and Empowerment.

www.unesco.org/culture/policies/ocd/html_eng/action4.shtml, Our Creative Diversity, Action 4: An International Plan for Gender Equality.

www.unesco.org/culture/policies/ocd/html_eng/chapter5.shtml, Our Creative Diversity, chapter 5. Gender and Culture.

Danielle Cliche, Ritva Mitchell, Andreas Joh. Wiesand(1998), "*Preparatory Paper : Women and Cultural policies*", European Research institute for Comparative Cultural Policy and the Arts,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UNESCO.

UNESCO(1998), "*Final Report*"(1998),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Sweden.

Stanley N. Katz(1984), "*The Art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fluences on Public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Preutice-Hall, Int.

UNESCO(2000), "*Gender Equality And Equity*", A summary review of UNESCO's accomplishments since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Unit for the Promotion of the Status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부 록



<부표 1> 『여성백서』(1985, 1991)상의 문화활동 관련내용

연도	문화활동 관련내용	비고
1985	<p><여성의 사회참여-여성과 문화활동></p> <p>1. 여성의 예술활동</p> <p>1) 학·예술원의 여성들</p> <p>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여성회원 한국건축가협회/한국국악협회/한국무용협회/한국사진작가협회/한국연극협회/한국영화인협회/한국미술협회(회화·조각공예)/한국문인협회(소설·시·방송작가·방송스크립터·신문 및 방송기자·출판부문·기타홍보부문·프로듀서)/음악협회(기악·성악·작곡·교향악단)</p> <p>2. 여성과 종교활동</p> <p>1) 불교</p> <p>2) 개신교</p> <p>3) 천주교</p> <p>3. 체육계의 여성과 그 활동상</p> <p>1) 경기종목별 여자선수의 활약 육상/탁구/배구/농구/궁도/여자핸드볼/배드민턴/등산</p> <p>2) 체육계의 여성지도자들 대한체육회/체육학계/감독·코치·트레이너/심판</p> <p>4. 매스컴에 비친 우리나라 여성상</p> <p>1) 신문과 여성</p> <p>2) TV 드라마에 비친 여성상</p> <p>3) TV 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상</p>	백서 주관 :한국여성 개발원

연도	문화활동 관련내용	비고
1991	<p><여성과 문화></p> <p>1. 창조문화에서의 여성</p> <p>1) 전통문화부문의 여성 전통생활문화/여성무형문화재/여성국악인/국악교육</p> <p>2) 문학부문의 여성 여성문학인/문학교육</p> <p>3) 미술·사진·디자인·건축부문의 여성 여성미술인/여성사진작가/여성건축가/미술·사진·디자인·건축교육</p> <p>4) 음악부문의 여성 여성음악인/음악교육</p> <p>5) 무용부문의 여성 여성무용가/무용교육</p> <p>6) 연극부문의 여성 여성연극인/연극교육</p> <p>2. 전달문화에서의 여성</p> <p>1) 정보화사회에서의 전달문화</p> <p>2) 대중매체와 여성 대중매체(신문방송계)여성 종사자 현황/여기자현황/방송작가/프로듀서(라디오PD/텔레비전PD)/도서·출판인/여성지</p> <p>3)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상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역할(신문, 여성잡지, 텔레비전, 광고)/대중매체 모니터 운동/ 양성 평등문화와 대중매체의 과제</p> <p>3. 여성의 문화향수 및 의식</p> <p>1) 문화향수 실태</p> <p>2) 문화예술 교육</p> <p>3) 문화의식</p> <p>4. 여성과 종교</p> <p>1) 불교</p> <p>2) 개신교</p> <p>3) 천주교</p> <p>5. 문화정책 및 앞으로의 과제</p> <p>1) 문화정책</p> <p>2) 앞으로의 과제</p>	백서 주관 :한국여성 개발원

<부표 2> 여성문화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영역들의 비교

문화부	유네스코	문화분야 여성정책의 주요 범주	여성문화정책영역
현 문화관광부⁵⁰⁾ <문화정책국> 문화정책/종무정책/ 국어정책/공공문화센 터/저작권/지역문화 <예술정책국> 예술정책/국제문화교 류/문화예술교육/대 중예술 <문화산업국> 문산정책/출판신문/ 영상진흥/게임음반/ 방송광고/만화/에니 <체육국> 체육정책/체육진흥/ 생활체육/국제체육교 류/체육산업진흥 <관광국> 관광정책/관광개발/ 국민관광/국제관광 <청소년국> 청소년정책/청소년지 원/청소년문화	- 문화적 유산 - 인채물 및 문예 - 음악·공연예술 - 조형예술 - 영화 및 사진 - 방송 - 사회문화활동 - 체육 및 오락 - 자연과 환경보호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 공직사회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평등 의식 교육 - 남녀평등의식 홍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여성미디어활동 - 프로그램 제작· 심의 기준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및 지원 -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 여성의 문화 활동의 장 마련 - 여성의 문화교류 - 여성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농촌여성의 생활문화조성 - 생활여건 개선 - 문화생활수준의 도농 격차 해소	- 여성의 문화향수 - 평등한 생활문화 - 대중매체 - 여성의 문화인력 - 여성의 문화교육 - 문화예술 진흥 - 여성의 문화활동 시설 - 여성의 문화적 유산 - 지역여성문화 - 여성의 문화교류 - 여성의 문화정보 - 문화행정 - 여성의 문화산업

50) 현재('03.8) 진행중인 문화부 자체 조직개편안을 기준으로, 조직의 명칭으로부
터 정책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여성의 문화활동 사례조사를 위한 주요 질문 내용

영역	세부 사항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일반현황 - 중점 프로그램 - 운영책임자와 실무자들의 여성문화에 대한 개념 설정 - 여성문화관련 프로그램과 문화동아리 활동 - 여성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제언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등)의 운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일반현황 - 중점 프로그램 - 여성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 현황 - 여성문화에 대한 인지 및 그에 기반한 운영 여부 - 여성들의 문화활동이 여성들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여성들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 - 여성문화 소모임 - 여성문화활성화를 위해 중시되어야 할 분야 및 정책제언
문화소모임을 통한 문화자원봉사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자제도 운영 계기 - 봉사자 수 및 여성비율 - 직원들 중 여성비율 - 봉사자제도에 대한 자체평가와 방향 - 특별히 여성 배려된 부분 - 운영 시 성평등한 관점을 필요로 하는 부분

◆ 연구보고서 집필참여 외부 전문가 ◆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박현경(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손경년(부천문화재단 정책실장)
양현미(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옥덕(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장)

2003 연구보고서 250-6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 연구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대)

<정가 4,500원>

ISBN 89-8491-068-6 93330